

WEBVTT

00:00:10.020 --> 00:00:11.408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508 --> 00:00:12.616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716 --> 00:00:15.180

오늘 이 시간에는 문법
세 번째 시간입니다.

00:00:15.280 --> 00:00:17.150

의미, 담화에 대한 내용인데요.

00:00:17.250 --> 00:00:20.940

의미, 담화라고 하면 단어들 간의
의미 관계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.

00:00:21.040 --> 00:00:24.427

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유의 관계,
반의 관계 이런 거 따져보는 건데.

00:00:24.527 --> 00:00:28.765

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라고 하면
우리 국어가 상당히 풍요롭다,

00:00:28.865 --> 00:00:30.264

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0:30.364 --> 00:00:33.361

국어가 이제 풍성한 이유는
뭐냐면 똑같은 말인데

00:00:33.461 --> 00:00:34.906

이게 다양하게 표현되거든요.

00:00:35.006 --> 00:00:37.939

예를 들어서 죽다라고 하는 것은
죽다라고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

00:00:38.039 --> 00:00:40.100

갔다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죽었다는 뜻이고.

00:00:40.200 --> 00:00:42.763

돌아가시다, 이것도 역시
마찬가지로 죽었다는 뜻이고.

00:00:42.863 --> 00:00:47.654

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겠지만,
뒤XX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
00:00:47.754 --> 00:00:49.103

죽었다는 얘기니까요.

00:00:49.203 --> 00:00:50.978

국어가 상당히 풍요로울
수밖에 없는 거예요.

00:00:51.078 --> 00:00:54.269

첫 번째를 보면 이제
의미 관계를 따지는데.

00:00:54.369 --> 00:00:57.549

첫 번째 유의 관계, 반의 관계,
상하, 동음이의 관계, 다의 관계.

00:00:57.649 --> 00:00:59.828

수능 시험에 한 두 번 정도
출제된 적이 있습니다.

00:00:59.928 --> 00:01:01.939

여러분, 확인하시면서 가볼게요.

00:01:02.039 --> 00:01:04.672

첫 번째, 유의 관계라고
하면 말소리는 다르지만,

00:01:04.772 --> 00:01:07.794

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 간의
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고,

00:01:07.894 --> 00:01:09.664

이러한 단어를 유의어라고 한다.

00:01:09.764 --> 00:01:13.211

예를 들어서 가난하다, 빈곤하다,
빈한하다, 똑같은 말이에요.

00:01:13.311 --> 00:01:17.300

빈궁하다, 어렵다, 궁핍하다,
전부 다 한자어들이 좀 많아서

00:01:17.400 --> 00:01:19.229

이런 유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.

00:01:19.329 --> 00:01:20.613

조금만 더 가볼게요, 여러분.

00:01:20.713 --> 00:01:24.241

여기다 동의 관계라고
하는 걸 한번 써볼까요?

00:01:24.341 --> 00:01:27.167

동의 관계는 국어에서 잘
나타나지는 않아요.

00:01:27.267 --> 00:01:30.438

이 동의 관계는 뜻이
아예 똑같은 단어예요.

00:01:30.538 --> 00:01:34.157

뜻이 아예 똑같은 단어고, 유의 관계는
뜻이 비슷한 단어의 관계입니다.

00:01:34.257 --> 00:01:36.655

그러면 선생님, 이거 어떻게
나눠요라고 말씀하시면

00:01:36.755 --> 00:01:40.548

동의 관계는 뭐냐면 문장에서
완전히 교체가 가능한 거죠.

00:01:40.648 --> 00:01:44.534
예를 들면 책방이랑 서점이라고
하면 나는 책방에 간다,

00:01:44.634 --> 00:01:47.759
나는 서점에 간다, 동일한
관계가 되는 거예요.

00:01:47.859 --> 00:01:49.148
책방에 간다, 서점에 간다.

00:01:49.248 --> 00:01:50.728
문장에서 완전히 교체가 가능하죠.

00:01:50.828 --> 00:01:55.696
그런데 유의 관계는 뭐냐면
예를 들면 셋별이라는 단어하고

00:01:55.796 --> 00:01:59.129
그다음에 금성이라는 단어는
똑같은 뜻이거든요.

00:01:59.229 --> 00:02:00.744
비슷한 뜻이잖아요.

00:02:00.844 --> 00:02:02.368
그런데 문장에서 쓰임새는 달라요.

00:02:02.468 --> 00:02:05.649
예를 들어서 와, 너는 셋별 같은
눈동자를 가졌어, 이걸 가능하지만,

00:02:05.749 --> 00:02:08.173
너는 금성 같은 눈동자를 가졌어,
이건 좀 어색하잖아요.

00:02:08.273 --> 00:02:13.153
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
맘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

00:02:13.253 --> 00:02:15.012
너 밥 먹었니, 이걸 가능하지만,

00:02:15.112 --> 00:02:17.520
너 맘마 먹었어, 이렇게
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

00:02:17.620 --> 00:02:19.627
그게 바로 유의 관계에
해당하는 겁니다.

00:02:19.727 --> 00:02:22.718
반의 관계라고 하면 반의 관계에
중요 표시 하겠습니다, 여러분.

00:02:22.818 --> 00:02:26.734
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에서
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

00:02:26.834 --> 00:02:28.746

대립하는 경우를 반의
관계라고 한다.

00:02:28.846 --> 00:02:32.445

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
반의어라고 하는 거죠.

00:02:32.545 --> 00:02:36.274

한 반의 관계에 있는
두 단어는, 이게 무슨 얘기냐면

00:02:36.374 --> 00:02:39.691

한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
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

00:02:39.791 --> 00:02:42.645

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
공통된다고 되어 있는데.

00:02:42.745 --> 00:02:45.256

다시, 다시.

00:02:45.356 --> 00:02:47.375

반의어라고 함, 이거고요.

00:02:47.475 --> 00:02:50.708

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오직
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루고

00:02:50.808 --> 00:02:53.125

나머지 의미 요소들은
모두 공통된다.

00:02:53.225 --> 00:02:55.719

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,
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?

00:02:55.819 --> 00:03:02.164

반의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
아버지와 반댓말이 뭐죠?

00:03:02.264 --> 00:03:05.385

아버지와 반댓말이 어머니가
될 수 있는 거죠.

00:03:05.485 --> 00:03:08.122

아버지의 반댓말은 칠판이
될 수는 없어요.

00:03:08.222 --> 00:03:10.374

아버지의 반댓말이 분필이
될 수는 없죠.

00:03:10.474 --> 00:03:12.980

왜 그러냐면 둘의 공통 관계가
없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

00:03:13.080 --> 00:03:14.532

성립하지 않는 거예요.

00:03:14.632 --> 00:03:17.729

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
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경우는

00:03:17.829 --> 00:03:18.959

공통 관계가 있죠.

00:03:19.059 --> 00:03:20.181

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.

00:03:20.281 --> 00:03:21.125

뭐가 공통점이에요?

00:03:21.225 --> 00:03:22.424

부모라는 공통점은 있는 거죠.

00:03:22.524 --> 00:03:24.841

그러나 한 가지 요소가
반대가 되는 겁니다.

00:03:24.941 --> 00:03:27.881

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뭐냐면
성별이 다른 거죠.

00:03:27.981 --> 00:03:30.996

여러분 집에 아버지, 어머니가 성별이
똑같으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.

00:03:31.096 --> 00:03:35.261

아버지, 어머니 이렇게 나타나는
게 바로 반의 관계예요.

00:03:35.361 --> 00:03:37.518

예를 들면 이런 것도
한번 볼까요, 여러분?

00:03:37.618 --> 00:03:39.549

총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.

00:03:39.649 --> 00:03:41.119

처녀라는 단어가 있고요.

00:03:41.219 --> 00:03:44.049

그다음에 소녀라는 단어가
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

00:03:44.149 --> 00:03:46.244

총각은 사람이죠.

00:03:46.344 --> 00:03:49.841

여기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
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.

00:03:49.941 --> 00:03:52.444

처녀도 역시 사람이고요.

00:03:52.544 --> 00:03:55.443

그다음에 소녀도 역시 사람입니다.

00:03:55.543 --> 00:03:58.357

그러니까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
사람이라는 공통점은 있죠.

00:03:58.457 --> 00:04:00.911
총각은 플러스 성인이고요.

00:04:01.011 --> 00:04:03.180
플러스 남자예요.

00:04:03.280 --> 00:04:05.076
남자 성인을 나타내는 거고.

00:04:05.176 --> 00:04:07.247
처녀는 플러스 성인은 맞죠.

00:04:07.347 --> 00:04:09.287
그러나 마이너스
남자라고 표현합니다.

00:04:09.387 --> 00:04:12.193
남자가 아니다, 이걸 마이너스
남자라고 표현합니다.

00:04:12.293 --> 00:04:16.532
소년은 마이너스 성인이죠,
성인은 아니니까요.

00:04:16.632 --> 00:04:18.825
그다음에 마이너스
남자에 해당합니다.

00:04:18.925 --> 00:04:20.536
그럼 여기 관계를 보시면요.

00:04:20.636 --> 00:04:22.207
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
있어요, 보세요.

00:04:22.307 --> 00:04:25.417
총각과 처녀는 서로 반의
관계가 될 수 있어요, 왜?

00:04:25.517 --> 00:04:28.016
총각과 처녀는 이게 다르잖아요.

00:04:28.116 --> 00:04:30.543
남자와 마이너스 남자
이게 다르니까.

00:04:30.643 --> 00:04:33.562
다른 요소는 전부 다 똑같고,
이 요소만 다른 거니까

00:04:33.662 --> 00:04:36.499
이거는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
얘기할 수 있죠.

00:04:36.599 --> 00:04:39.715
처녀와 소녀도 마찬가지로 이
관계 하나만 다르잖아요.

00:04:39.815 --> 00:04:41.586
성인인지 아닌지만 달라지는 거니까.

00:04:41.686 --> 00:04:44.778
처녀와 소녀도 역시 반의
관계가 성립합니다.

00:04:44.878 --> 00:04:49.276
그러나 총각과 소녀 사이에는 반의
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, 왜?

00:04:49.376 --> 00:04:50.971
두 요소가 다르잖아요.

00:04:51.071 --> 00:04:54.197
애는 성인이면서 남자지만, 애는
성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

00:04:54.297 --> 00:04:58.079
두 가지 요소가 반대니까 이거는
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.

00:04:58.179 --> 00:05:01.081
그래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
한 가지 요소만 반대다.

00:05:01.181 --> 00:05:03.413
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.

00:05:03.513 --> 00:05:04.935
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.

00:05:05.035 --> 00:05:06.662
반의 관계를 보면요.

00:05:06.762 --> 00:05:09.425
반의 관계는 뭐냐면
이런 것도 있어요.

00:05:09.525 --> 00:05:12.899
정도 반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05:12.999 --> 00:05:16.167
정도 반의어라고 하는 게 있고,

00:05:16.267 --> 00:05:19.550
그다음에 모순 반의어라고
하는 게 있어요.

00:05:19.650 --> 00:05:23.280
정도 반의어라고 하는 것과 모순
반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

00:05:23.380 --> 00:05:29.663
정도 반의어는 중간항이
허용되는 겁니다, 중간 항이.

00:05:29.763 --> 00:05:33.020
그런데 애는 중간항이 허용되지
않는 거예요, 중간 항이.

00:05:33.120 --> 00:05:39.611
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정도의
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

00:05:39.711 --> 00:05:45.493
예를 들면 정도 반의어라고 하면 답다와
춡다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?

00:05:45.593 --> 00:05:46.880
답다와 춡다예요.

00:05:46.980 --> 00:05:49.810
답다와 춡다는 중간항이
있을까요, 없을까요?

00:05:49.910 --> 00:05:51.704
답다와 춡다, 있죠?

00:05:51.804 --> 00:05:52.858
뭐가 있을까요?

00:05:52.958 --> 00:05:54.655
미지근하다는 아닙니다.

00:05:54.755 --> 00:05:57.168
미지근하다는 것은 날씨 참 미지근하다,
이러지 않잖아요, 그렇죠?

00:05:57.268 --> 00:06:00.109
답다와 춡다는 중간이
서늘하다 또는 따뜻하다.

00:06:00.209 --> 00:06:01.692
이 정도는 가능하겠죠.

00:06:01.792 --> 00:06:04.634
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
답다와 춡다의 중간이 뭐냐

00:06:04.734 --> 00:06:07.934
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
괜찮다, 이렇게 얘기해요.

00:06:08.034 --> 00:06:10.668
괜찮다가 중간, 물론
가능하기는 하겠지만,

00:06:10.768 --> 00:06:12.600
괜찮다로 중간항을
찾으시면 안 됩니다.

00:06:12.700 --> 00:06:14.957
어떻게 찾냐면 이게
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

00:06:15.057 --> 00:06:18.733
답지도 않고, 춡지도
않은 상태가 있니?

00:06:18.833 --> 00:06:20.722
이게 바로 중간항입니다, 아시겠죠?

00:06:20.822 --> 00:06:23.263
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다와
어렵다도 마찬가지로인데요.

00:06:23.363 --> 00:06:26.862

쉽다와 어렵다 같은 경우도
중간항이 뭐예요?

00:06:26.962 --> 00:06:29.373

괜찮다, 괜찮다 안 됩니다.

00:06:29.473 --> 00:06:31.307

여러분, 괜찮다로
찾는 게 아니고요.

00:06:31.407 --> 00:06:33.967

쉽지도 않고 어렵지도
않은 상태가 있는 거죠.

00:06:34.067 --> 00:06:35.606

그게 바로 중간항입니다.

00:06:35.706 --> 00:06:36.581

되겠습니까, 여러분?

00:06:36.681 --> 00:06:40.709

그런데 무슨 관계라고 하면 뭐냐면
예를 들면 삶과 죽음이에요.

00:06:40.809 --> 00:06:44.028

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관계는
중간항이 없는 겁니다, 여러분.

00:06:44.128 --> 00:06:45.419

삶과 죽음이라고 하면.

00:06:45.519 --> 00:06:47.261

선생님, 좀비 있잖아요.

00:06:47.361 --> 00:06:49.443

그런 거 하지 마세요.

00:06:49.543 --> 00:06:51.335

국어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.

00:06:51.435 --> 00:06:53.828

심지어는 체가 혼수상태
이런 것까지 들었는데요.

00:06:53.928 --> 00:06:55.329

그게 아니고요.

00:06:55.429 --> 00:06:57.905

삶과 죽음이라고 하면 중간항이
없는 거예요, 국어에서는.

00:06:58.005 --> 00:07:01.124

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.

00:07:01.224 --> 00:07:04.080

남자와 여자도 중간항이 절대
없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07:04.180 --> 00:07:06.835
그러니까 반의어에서는 이런
정도 반의어, 모순 반의어

00:07:06.935 --> 00:07:08.897
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
확인하시면 되고.

00:07:08.997 --> 00:07:10.631
하나만 더 설명합니다.

00:07:10.731 --> 00:07:13.175
방향 반의어라고 하는 게
있습니다, 여러분.

00:07:13.275 --> 00:07:16.085
방향 반의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.

00:07:16.185 --> 00:07:18.388
가다와 오다예요.

00:07:18.488 --> 00:07:19.596
가다와 오다입니다.

00:07:19.696 --> 00:07:21.583
이거는 방향이 달라지는데.

00:07:21.683 --> 00:07:23.583
여러분이 착각하시면
안 되는 게 뭐냐면

00:07:23.683 --> 00:07:26.607
여기에서 방향이 동서남북의 방향을
뜻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

00:07:26.707 --> 00:07:29.000
예를 들어서 방향 반의어는
이런 것도 있어요.

00:07:29.100 --> 00:07:32.983
뭐가 있냐면 부모와 자식이라고
하는 것도 역시 방향 반의어예요.

00:07:33.083 --> 00:07:34.372
갑자기 혼란스럽죠?

00:07:34.472 --> 00:07:35.985
이게 무슨 뜻이냐.

00:07:36.085 --> 00:07:39.099
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
뜻이거든요, 방향 반의어는.

00:07:39.199 --> 00:07:40.147
보세요.

00:07:40.247 --> 00:07:42.803
선생님은 선생님 아버지한테는

자식이 되는 거고,

00:07:42.903 --> 00:07:49.897
선생님 아들, 딸에게 이 관계라면
바로 선생님은 부모가 되는 거죠.

00:07:49.997 --> 00:07:52.585
그러니까 가다라고 하는 건
뭐냐면 여러분이 있어요.

00:07:52.685 --> 00:07:54.981
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
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,

00:07:55.081 --> 00:07:56.669
카메라 입장에서 오는 거잖아요.

00:07:56.769 --> 00:08:00.229
이런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
방향 반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

00:08:00.329 --> 00:08:05.347
그러면 가다, 오다는 방향 반의어면서
정도 반의어가 될 수 있죠.

00:08:05.447 --> 00:08:08.334
가지도 않고, 오지도 않은
상태가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08:08.434 --> 00:08:12.218
그러니까 가다, 오다는 방향 반의어면서
정도 반의어가 되는 거고요.

00:08:12.318 --> 00:08:16.111
그다음에 부모, 자식이라고
하면 방향 반의어면서

00:08:16.211 --> 00:08:18.173
모순 반의어에 해당되어진 거죠.

00:08:18.273 --> 00:08:20.172
부모도 아니고, 자식도
아닌 사람이 있어요?

00:08:20.272 --> 00:08:21.046
없습니다.

00:08:21.146 --> 00:08:23.409
누구나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
자식이 있거나 이러잖아요.

00:08:23.509 --> 00:08:26.675
그러니까 부모, 자식이라고 하는
것은 모순 반의어가 되는 거죠.

00:08:26.775 --> 00:08:29.510
부모도 아니고 자식도
아닌 경우는 없으니까요.

00:08:29.610 --> 00:08:31.868
이게 바로 이제

반의어의 종류들입니다.

00:08:31.968 --> 00:08:33.639
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, 여러분.

00:08:33.739 --> 00:08:43.158
이 반의어는요, 하나의 단어는
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해요.

00:08:43.258 --> 00:08:45.148
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하는데.

00:08:45.248 --> 00:08:49.301
예를 들어서 열다라는 단어를 보시면
열다는 문을 열다 할 때는

00:08:49.401 --> 00:08:50.457
반대말이 뭐죠?

00:08:50.557 --> 00:08:52.185
문을 닫다가 되겠죠.

00:08:52.285 --> 00:08:56.074
그런데 자물쇠를 열다 할 때 그
열다는 무엇의 반대말이냐면

00:08:56.174 --> 00:08:58.291
자물쇠를 잠그다의 반대말입니다.

00:08:58.391 --> 00:09:01.671
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열다라는
단어가 반의어가 닫다도 되고요,

00:09:01.771 --> 00:09:03.098
잠그다도 되는 거죠.

00:09:03.198 --> 00:09:05.566
그러니까 이 반의어 같은
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

00:09:05.666 --> 00:09:09.349
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, 꼭
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09:09.449 --> 00:09:13.426
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
반의 관계 다음으로 넘어가면

00:09:13.526 --> 00:09:16.172
상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09:16.272 --> 00:09:18.978
상하 관계라고 하면 이게
작년에 모의고사 문제에

00:09:19.078 --> 00:09:21.391
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.

00:09:21.491 --> 00:09:25.461
상하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 뭐냐면
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예요.

00:09:25.561 --> 00:09:28.657

상의어와 하의어라고 하는
게 뭐냐면 한쪽 의미상

00:09:28.757 --> 00:09:31.863

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
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

00:09:31.963 --> 00:09:35.889

바로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,
이때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를

00:09:35.989 --> 00:09:38.306

상의어라고 하고요,
포괄적인 개념이니까.

00:09:38.406 --> 00:09:41.656

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를
하의어라고 한다, 어렵지 않죠?

00:09:41.756 --> 00:09:45.019

상이어는 음식, 한식.
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09:45.119 --> 00:09:48.429

그다음에 떡국, 중국,
불고기, 일식.

00:09:48.529 --> 00:09:51.322

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식의
하의어가 되는 거죠.

00:09:51.422 --> 00:09:55.211

그런데 이 상하 관계에서는 한 가지
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

00:09:55.311 --> 00:09:58.746

상대적인 관계다, 이걸
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09:58.846 --> 00:10:03.228

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한식이라는
단어는 상의어일까요, 하의어일까요?

00:10:03.328 --> 00:10:04.541

알 수 없죠.

00:10:04.641 --> 00:10:07.427

어떤 단어랑 비교되느냐에 따라서
상의어가 될 수도 있고

00:10:07.527 --> 00:10:08.983

하의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.

00:10:09.083 --> 00:10:11.200

한식이라는 단어는
음식에서는 하의어지만,

00:10:11.300 --> 00:10:14.952

한식과 김치를 봤을 때는 한식이

상의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10:15.052 --> 00:10:19.916
그러니까 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
걸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.

00:10:20.016 --> 00:10:21.052
되셨습니까?

00:10:21.152 --> 00:10:23.140
다음은 동음이의 관계하고
다의 관계인데요.

00:10:23.240 --> 00:10:26.740
동음이의와 다의 관계는 제가 이쪽으로
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

00:10:26.840 --> 00:10:32.900
동음이의하고 다의어는 말 그대로
동음이의어는 음은 똑같지만

00:10:33.000 --> 00:10:36.994
뜻을 다른 걸 얘기하는 거고,
다의어는 뭐냐면 뜻이 여러 개로

00:10:37.094 --> 00:10:40.073
파생되는 것을 바로 다의
관계라고 얘기합니다.

00:10:40.173 --> 00:10:42.948
사전을 우리가 만약에 찾아
봤다고 생각해 볼까요?

00:10:43.048 --> 00:10:45.667
사전 찾으려면 손이라는
단어가 이렇게 나와요.

00:10:45.767 --> 00:10:54.941
손1, 그다음에 손2, 그다음에
손3 이렇게 나옵니다.

00:10:55.041 --> 00:10:58.858
그러면 손1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
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10:58.958 --> 00:11:03.947
1번이라고 동그라미 하고 신체
일부분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.

00:11:04.047 --> 00:11:08.506
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손이
차갑다, 이렇게 쓰는 거예요.

00:11:08.606 --> 00:11:10.389
예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.

00:11:10.489 --> 00:11:15.292
두 번째는 물론 많은 뜻이 있겠지만,
두 번째는 일손이라고 하는

00:11:15.392 --> 00:11:17.423

뜻으로도 쓰이죠,
손이라고 하는 단어는.

00:11:17.523 --> 00:11:21.804

예를 들면 손이 일을
하는데 손이 부족하다,

00:11:21.904 --> 00:11:27.724

이 정도가 바로 뭐냐면 손의
또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.

00:11:27.824 --> 00:11:33.151

그런데 손 두 번째는 뭐냐면,
손님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.

00:11:33.251 --> 00:11:37.489

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손이라는
의미도 있는 거죠.

00:11:37.589 --> 00:11:39.287

그러면 잘 보세요.

00:11:39.387 --> 00:11:41.923

이거 하나, 둘,
세 개의 관계입니다.

00:11:42.023 --> 00:11:43.371

손1, 2, 3.

00:11:43.471 --> 00:11:49.133

이 세 개의 관계를 뭐라고
하냐면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.

00:11:49.233 --> 00:11:51.686

그러니까 음은 똑같은데
뜻이 다른 단어죠.

00:11:51.786 --> 00:11:53.326

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.

00:11:53.426 --> 00:11:56.256

그래서 동음이의어라고 얘기합니다.

00:11:56.356 --> 00:11:59.414

이 동음이의어라고 하면
동음이의어는 왜 이게

00:11:59.514 --> 00:12:02.754

동음이의어가 되는 거냐면 음은
똑같지만 뜻이 다른 거예요.

00:12:02.854 --> 00:12:05.969

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
개는 똑같은 단어일까요,

00:12:06.069 --> 00:12:07.530

아니면 별개의 단어일까요?

00:12:07.630 --> 00:12:11.134

서로 별개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.

00:12:11.234 --> 00:12:14.622

그냥 우연히 소리가
똑같은 뿐이에요.

00:12:14.722 --> 00:12:19.980

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
소리가 똑같은 뿐이에요.

00:12:20.080 --> 00:12:24.431

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단어가
되는 거죠, 별개의 단어.

00:12:24.531 --> 00:12:26.913

그러면 이 세 개는 뜻이
연관성이 있을까, 없을까?

00:12:27.013 --> 00:12:31.007

신체, 손님, 자손은 뜻이
연관성이 없는 거죠.

00:12:31.107 --> 00:12:32.661

연관성이 없는 거예요.

00:12:32.761 --> 00:12:34.702

동음이의어가 어떤지 아시겠어요?

00:12:34.802 --> 00:12:38.415

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
신체 일부분의 손과

00:12:38.515 --> 00:12:40.982

그다음에 일손을 나타내는
손이라고 하는 것은

00:12:41.082 --> 00:12:44.739

애와 애의 관계는 바로
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냐면

00:12:44.839 --> 00:12:48.291

다의 관계다, 다의어다
이렇게 얘기를 하죠.

00:12:48.391 --> 00:12:51.873

그러면 애네는 뜻이 서로
연관성이 있어요, 없어요?

00:12:51.973 --> 00:12:53.630

연관성이 있는 겁니다.

00:12:53.730 --> 00:12:55.131

연관성이 있고요.

00:12:55.231 --> 00:12:58.026

그러면 하나의 단어일까요,
별개의 단어일까요?

00:12:58.126 --> 00:13:01.225

하나의 단어가 되는
겁니다, 하나의 단어가.

00:13:01.325 --> 00:13:04.581

그러면 여기에서 손이 차갑다하고
여기 손이 부족하다 할 때

00:13:04.681 --> 00:13:07.422

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
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.

00:13:07.522 --> 00:13:10.137

여기 밑에를 보면 일손이라고
하는 것의 의미가

00:13:10.237 --> 00:13:13.814

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
손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.

00:13:13.914 --> 00:13:16.160

그러니까 일손이라는 의미로
뜻이 파생된 거예요.

00:13:16.260 --> 00:13:19.907

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
이 뜻을 뭐라고 하나면

00:13:20.007 --> 00:13:24.346

중심 의미라고
얘기합니다, 중심 의미.

00:13:24.446 --> 00:13:26.209

그다음에 2번, 3번.

00:13:26.309 --> 00:13:27.526

3번도 있을 겁니다, 아마.

00:13:27.626 --> 00:13:31.830

썸썸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.

00:13:31.930 --> 00:13:36.222

우리 큰어머니는 손이 크셔서 김치를
담글 때도 수백 포기 담가.

00:13:36.322 --> 00:13:36.962

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, 썸썸이.

00:13:37.062 --> 00:13:39.275

이런 의미도 여러 개가
나올 수 있거든요.

00:13:39.375 --> 00:13:44.935

이렇게 점점 이렇게 파생되는 의미를
뭐라고 하나면 주변 의미다,

00:13:45.035 --> 00:13:46.999

이렇게 얘기하죠, 주변 의미다.

00:13:47.099 --> 00:13:49.089

이게 바로 다의어 관계입니다.

00:13:49.189 --> 00:13:52.872

동음이의어 관계하고 다의어 관계는
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죠.

00:13:52.972 --> 00:13:54.524
수능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.

00:13:54.624 --> 00:13:56.584
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
이런 거예요.

00:13:56.684 --> 00:14:04.430
나는 머리를 감다, 그다음에
실을 옷에 감았다라고 하면

00:14:04.530 --> 00:14:08.470
머리를 감다와 실을 감다라고 하는
것이 동음이의어 관계일까요,

00:14:08.570 --> 00:14:10.552
다의어 관계일까요?

00:14:10.652 --> 00:14:11.847
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

00:14:11.947 --> 00:14:13.690
동음이의어예요, 다의어예요?

00:14:13.790 --> 00:14:15.407
그렇죠, 동음이의어입니다.

00:14:15.507 --> 00:14:18.091
머리를 감다는 것은 머리를 깨끗하게
하다, 빨다 이런 뜻이잖아요.

00:14:18.191 --> 00:14:21.903
그런데 실을 감다라는 것은
이렇게 동그랗게 감아두다,

00:14:22.003 --> 00:14:25.368
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
서로 이제 관련 없는 거죠.

00:14:25.468 --> 00:14:26.808
이런 건 어떨까요?

00:14:26.908 --> 00:14:30.519
나는 귀가 아프다하고, 거울에
귀가 깨졌다라고 해요.

00:14:30.619 --> 00:14:32.894
그러면 이건 동음이의어일까요,
다의어일까요?

00:14:32.994 --> 00:14:34.667
이건 다의어입니다, 여러분.

00:14:34.767 --> 00:14:35.832
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.

00:14:35.932 --> 00:14:38.857
뜻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면 이
귀라고 하는 건 사람 신체 일부분,

00:14:38.957 --> 00:14:42.057

동그란 것에 빠죽하게 튀어
나온 부분을 귀라고 하죠.

00:14:42.157 --> 00:14:45.428
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의 그
귀퉁이 부분이거든요.

00:14:45.528 --> 00:14:48.723
뽀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니까
그것도 역시 귀라고 하는 말에서

00:14:48.823 --> 00:14:50.430
파생이 된 겁니다.

00:14:50.530 --> 00:14:53.013
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
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.

00:14:53.113 --> 00:14:57.602
아무튼 동음이의 관계와
다의 관계인데요.

00:14:57.702 --> 00:14:58.968
설명을 한번 볼까요?

00:14:59.068 --> 00:15:01.989
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
두 개 이상의 단어들 이 맺는

00:15:02.089 --> 00:15:03.269
관계가 동음이의 관계다.

00:15:03.369 --> 00:15:05.671
우연히 소리가 똑같은 뿐이죠.

00:15:05.771 --> 00:15:07.400
이 단어들 동음이의어라고 한다.

00:15:07.500 --> 00:15:09.778
모자를 쓰다, 글씨를
쓰다, 동음이의어죠.

00:15:09.878 --> 00:15:14.645
한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
지니는 것을 다의 관계라고 한다.

00:15:14.745 --> 00:15:15.785
관련된 겁니다.

00:15:15.885 --> 00:15:18.023
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
단어를 다의어라고 합니다.

00:15:18.123 --> 00:15:23.269
손, 신체 부위라는 뜻도 있고 일손,
영향력,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15:23.369 --> 00:15:25.902
그의 손아귀에서, 그의
손에서 벗어나야 한다.

00:15:26.002 --> 00:15:28.502

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
한다, 이런 의미니까요.

00:15:28.602 --> 00:15:32.246

여기까지 단어들의 의미
관계를 살펴봤습니다.

00:15:32.346 --> 00:15:35.032

단어들의 의미 관계가
상당히 많아요.

00:15:35.132 --> 00:15:37.228

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상당히 많죠.

00:15:37.328 --> 00:15:39.698

다음에는 의미 변화에
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00:15:39.798 --> 00:15:42.915

이 의미 변화는 조선 시대에
썼던 단어들과 지금하고

00:15:43.015 --> 00:15:45.243

의미가 많이 달라지는
걸 얘기하는 거예요.

00:15:45.343 --> 00:15:47.662

대표적인 단어가 얼굴이라는
단어가 있는데.

00:15:47.762 --> 00:15:51.519

얼굴은 옛날에 상당히
포괄적인 뜻이었습니다.

00:15:51.619 --> 00:15:55.326

얼굴 좋다, 이렇게 얘기하면 뭐였냐면
몸 전체를 뜻하는 단어였는데

00:15:55.426 --> 00:15:57.562

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하는 단어죠.

00:15:57.662 --> 00:16:00.614

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완전히
바뀌는 단어가 있거든요.

00:16:00.714 --> 00:16:02.051

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,
별로 같은 경우는

00:16:02.151 --> 00:16:03.802

요새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잖아요.

00:16:03.902 --> 00:16:07.395

옛날에는 별로라는 단어가
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.

00:16:07.495 --> 00:16:11.111

심청전이라는 작품에 보면 심봉사가
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,

00:16:11.211 --> 00:16:12.575

만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

00:16:12.675 --> 00:16:17.165

심청이가 마지막에 음식을 딱 차려
놓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

00:16:17.265 --> 00:16:22.051

그때 이제 심봉사가 뭐라고 하나면
오늘 반찬은 별로 좋구나,

00:16:22.151 --> 00:16:22.971
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16:23.071 --> 00:16:25.551

그게 뭐냐면 별로가 매우
뛰어나다, 이런 뜻이었어요.

00:16:25.651 --> 00:16:28.916

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
잘 모르면 문맥상의 의미를

00:16:29.016 --> 00:16:31.549

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
있으니까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

00:16:31.649 --> 00:16:34.526

어떻게 변했는지, 과거의
단어의 의미가 뭐였고,

00:16:34.626 --> 00:16:37.272

지금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
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

00:16:37.372 --> 00:16:38.965

상당히 재미있습니다.

00:16:39.065 --> 00:16:41.305

첫 번째 보시면 의미가
축소되는 게 있어요.

00:16:41.405 --> 00:16:44.770

축소되는 것은 사용 범위가
좁아지는 걸 뜻하는 거죠.

00:16:44.870 --> 00:16:49.253

원래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
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거였는데,

00:16:49.353 --> 00:16:51.881

지금은 사람이라는
뜻으로 쓰였습니다.

00:16:51.981 --> 00:16:53.836

중생이라는 단어는
의미가 축소된 거죠.

00:16:53.936 --> 00:16:56.837

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이라는
단어도 마찬가지로요.

00:16:56.937 --> 00:17:01.651

자주 나오는 것은 말씀이라고
하는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.

00:17:01.751 --> 00:17:04.694

말씀은 원래 언어를
뜻하는 거였는데요.

00:17:04.794 --> 00:17:08.514

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
지금은 존칭어로만 쓰이죠.

00:17:08.614 --> 00:17:11.303

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
의미가 축소됐습니다.

00:17:11.403 --> 00:17:13.680

또 하나 자주 나오는 건
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.

00:17:13.780 --> 00:17:17.923

놈은 원래 사람을 뜻하는 거였는데,
지금은 비속어로만 쓰이는 거죠.

00:17:18.023 --> 00:17:21.431

의미가 확대하는 걸
보시면 본래의 의미보다

00:17:21.531 --> 00:17:23.378

뜻의 사용 범위가
넓어지는 경우인데.

00:17:23.478 --> 00:17:27.570

원래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
지 자가 종이 지 자예요.

00:17:27.670 --> 00:17:30.946

종이로 만든 갑이었는데,
이제는 가죽이나 형철 따위로

00:17:31.046 --> 00:17:35.258

작게 만든 물건, 돈을 집어
넣는 물건을 뜻하게 되는 거니까

00:17:35.358 --> 00:17:37.534

이것도 역시 의미가 축소된 거죠.

00:17:37.634 --> 00:17:41.839

원래 겨레라고 하는 말은 종친,
친척들을 뜻하는 거였는데

00:17:41.939 --> 00:17:44.440

민족, 동포 이런
의미로 쓰이는 거죠.

00:17:44.540 --> 00:17:47.106

자주 나오는 예시는 아니고
이게 오히려 자주 나옵니다.

00:17:47.206 --> 00:17:50.803

왕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

임금만을 뜻했잖아요.

00:17:50.903 --> 00:17:54.510

그런데 요새는 왕이라는 단어가
임금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

00:17:54.610 --> 00:17:55.720

크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.

00:17:55.820 --> 00:17:57.872

왕뚜껑,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

00:17:57.972 --> 00:18:01.485

크다라는 의미로 쓰이고, 잘한다라고
하는 의미로도 쓰이죠.

00:18:01.585 --> 00:18:04.423

주산왕, 암기왕, 뭐
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

00:18:04.523 --> 00:18:08.101

이런 것들이 지금은 의미가
확대돼서 쓰이는 겁니다.

00:18:08.201 --> 00:18:11.262

의미가 이동된다는 것은 의미가
다른 뜻으로 바뀐 경우인데,

00:18:11.362 --> 00:18:13.012

어리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.

00:18:13.112 --> 00:18:15.005

어리다는 원래 옛날에
어리석다였어요.

00:18:15.105 --> 00:18:17.271

그런데 나이가 적다, 이런
뜻으로 바뀌는 거고.

00:18:17.371 --> 00:18:22.181

또 하나는 어여쁘다 같은 경우도
옛날에는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는데

00:18:22.281 --> 00:18:24.193

오늘날에는 예쁘다, 이런
뜻으로 쓰이는 거죠.

00:18:24.293 --> 00:18:27.021

의미가 변화됩니다.

00:18:27.121 --> 00:18:29.774

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.

00:18:29.874 --> 00:18:31.802

중의적 표현이라고
하는 게 있습니다.

00:18:31.902 --> 00:18:32.785

글씨가 잘 보이시나요?

00:18:32.885 --> 00:18:37.864

중의적 표현을 하면 의미가 두
가지 이상으로 해석됐을 때

00:18:37.964 --> 00:18:39.881
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.

00:18:39.981 --> 00:18:43.239
중의적 표현은 크게
세 가지가 있어요.

00:18:43.339 --> 00:18:43.840
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데.

00:18:43.940 --> 00:18:46.113
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
설명 드릴게요.

00:18:46.213 --> 00:18:48.099
첫 번째는 어휘적
중의성이라고 하는 건데,

00:18:48.199 --> 00:18:51.531
어휘 때문에 나타나는 중의성입니다.

00:18:51.631 --> 00:18:53.284
동음이의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.

00:18:53.384 --> 00:18:57.008
배가 보인다라고 하면 선박이
보인다, 신체 일부가 보인다,

00:18:57.108 --> 00:18:59.195
과일의 하나가 보인다,
이렇게 될 수 있죠.

00:18:59.295 --> 00:19:03.175
그다음에 중심 의미와 관용적
의미에 대한 중의성인데.

00:19:03.275 --> 00:19:05.773
이런 것들은 다의 관계
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.

00:19:05.873 --> 00:19:07.684
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었잖아요.

00:19:07.784 --> 00:19:11.525
우리나라는 손이 크다라고 하면
진짜 손이 크다, 신체 일부가

00:19:11.625 --> 00:19:15.287
큰 건지 아니면 씹씹이가 큰
건지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.

00:19:15.387 --> 00:19:18.058
그게 중심 의미와 관용적
표현이라고 하면

00:19:18.158 --> 00:19:20.640
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9:20.740 --> 00:19:21.668

이런 것도 있어요.

00:19:21.768 --> 00:19:26.557

그는 스승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면
뒤쫓아 갔다, 이런 의미도 되겠고.

00:19:26.657 --> 00:19:28.821

학문의 뒤를 따르다
이런 것도 되겠고,

00:19:28.921 --> 00:19:31.965

그다음에 스승을 따라 죽었다,
이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.

00:19:32.065 --> 00:19:35.615

그게 바로 다의 관계에
의한 중의성.

00:19:35.715 --> 00:19:39.340

즉, 다시 말하면 어휘적
중의성이라고 합니다.

00:19:39.440 --> 00:19:42.338

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이
정말정말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19:42.438 --> 00:19:44.263

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하는 건데요.

00:19:44.363 --> 00:19:47.168

첫 번째는 수식의 범위에
따른 중의성이예요.

00:19:47.268 --> 00:19:50.490

나는 친절한 미션이의
언니를 만났다라고 할 때

00:19:50.590 --> 00:19:54.842

이 친절한이라고 하는 게 미션인지
언니인지가 모호한 거죠.

00:19:54.942 --> 00:19:56.345

미션인지 언니인지가

00:19:56.445 --> 00:19:59.651

친절한이 수식하는 대상이 미션인지
언니인지 모호한 경우죠.

00:19:59.751 --> 00:20:02.995

이런 것들이 바로 수식
범위에 의한 중의성입니다.

00:20:03.095 --> 00:20:06.672

노란 참외의 씨라고 하면
노란 게 참외를 뜻하는 건지

00:20:06.772 --> 00:20:08.956

씨를 뜻하는 건지 모호한 거죠.

00:20:09.056 --> 00:20:11.942

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
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

00:20:12.042 --> 00:20:15.137
어떤 거냐면 중의성을 없애는
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20:15.237 --> 00:20:17.328
중의성을 없앨 때 어떻게
하느냐가 중요한데.

00:20:17.428 --> 00:20:19.566
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

00:20:19.666 --> 00:20:22.244
우선 첫 번째, 썬표를
찍는 방법이 있습니다.

00:20:22.344 --> 00:20:23.680
썬표를 찍어 볼까요?

00:20:23.780 --> 00:20:26.473
나는, 친절한 뒤에 썬표를
한번 찍어 볼까요?

00:20:26.573 --> 00:20:28.163
썬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?

00:20:28.263 --> 00:20:32.934
친절한 미션이의 언니라고 하면
미션이의 언니가 먼저 꾸며주는 거고,

00:20:33.034 --> 00:20:35.891
친절한은 언니만
꾸며주게 되는 거죠.

00:20:35.991 --> 00:20:40.317
그다음에 반대로 미션이의
다음에 썬표가 들어간다면

00:20:40.417 --> 00:20:43.803
어떻게 되는 거냐면 친절한 미션이
먼저 수식이 되는 거고,

00:20:43.903 --> 00:20:45.439
미션이가 친절한 게 되는 거예요.

00:20:45.539 --> 00:20:49.257
그래서 썬표를 통해서 중의성이
해소되는 방법도 있고,

00:20:49.357 --> 00:20:52.160
또 하나는 뭐냐면, 썬 드릴까요?

00:20:52.260 --> 00:20:56.545
첫 번째는 썬표를 이용해서
중의성을 없앨 수도 있고.

00:20:56.645 --> 00:21:00.489
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순을
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.

00:21:00.589 --> 00:21:02.966
어순을 아예 바꾸는 거죠.

00:21:03.066 --> 00:21:06.928
어순을 바꾸는 게 나는,
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말고

00:21:07.028 --> 00:21:09.661
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
아예 순서를 바꾸는 거죠.

00:21:09.761 --> 00:21:13.789
순서를 바꿔서 아예 문장 자체를
교체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.

00:21:13.889 --> 00:21:17.974
나는 친절한 미션이와 그의
언니를 만났다, 이런 식으로

00:21:18.074 --> 00:21:19.716
보충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.

00:21:19.816 --> 00:21:25.957
세 번째는 보충 설명을 하면서
중의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.

00:21:26.057 --> 00:21:28.730
어순이 바뀐다고 하면 예를
들어서 아까 얘기했던

00:21:28.830 --> 00:21:35.384
노란 참외의 씨라고 하면 참외의 노란
씨 이렇게 바꿔 버리는 거예요.

00:21:35.484 --> 00:21:36.665
여기도 마찬가지로겠네요.

00:21:36.765 --> 00:21:40.997
나는 미션이의 친절한 언니라고
얘기하면 친절한이 언니만

00:21:41.097 --> 00:21:42.901
해당되는 거니까 어순도
조정할 수 있는 거죠.

00:21:43.001 --> 00:21:48.313
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, 그건
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.

00:21:48.413 --> 00:21:56.667
우선 두 번째는 조사 와, 과에
의해 연결 관계에 따른 중의성.

00:21:56.767 --> 00:21:58.840
연결 관계에 따른 중의성인데.

00:21:58.940 --> 00:22:00.521
오타네요.

00:22:00.621 --> 00:22:03.816

와, 과 이런 연결 관계에 따른
중의성인데, 이런 거예요.

00:22:03.916 --> 00:22:07.922

나는 수진이와 현정이를
만났다라고 하면 이 와가

00:22:08.022 --> 00:22:10.742

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
달라지는 건데요.

00:22:10.842 --> 00:22:12.597

나는 수진이와 현정이를 만났다.

00:22:12.697 --> 00:22:13.642

첫 번째는 뭐예요?

00:22:13.742 --> 00:22:16.760

내가 수진이와 현정이가
둘 다 같이 있는 곳에

00:22:16.860 --> 00:22:19.750

내가 간 거예요, 첫 번째는.

00:22:19.850 --> 00:22:24.661

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정이가 혼자
있었는데 내가 수진이와 함께

00:22:24.761 --> 00:22:27.127

현정이가 혼자 있는 곳에 간 거죠.

00:22:27.227 --> 00:22:29.978

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로
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.

00:22:30.078 --> 00:22:31.143

이해되셨어요?

00:22:31.243 --> 00:22:33.454

그다음에 비교 대상에
따른 중의성인데.

00:22:33.554 --> 00:22:35.859

비교 대상, 어떻게 비교되느냐에
따라 다른 건데요.

00:22:35.959 --> 00:22:38.596

동생은 나보다 산을 더
좋아한다고 하면,

00:22:38.696 --> 00:22:41.032

여기에서 이 보다
때문에 그런 거예요.

00:22:41.132 --> 00:22:44.090

첫 번째는 동생한테
선택하라고 하는 거지.

00:22:44.190 --> 00:22:47.641

너 날 선택할래, 산을
선택할래라고 했더니 나는 산,

00:22:47.741 --> 00:22:48.854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22:48.954 --> 00:22:49.607
첫 번째.

00:22:49.707 --> 00:22:53.933
두 번째는 뭐냐면 동생도 산을
좋아하고, 나도 산을 좋아하거든요.

00:22:54.033 --> 00:22:55.536
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

00:22:55.636 --> 00:22:57.483
동생은 일주일에 서너
번씩 가는 거죠.

00:22:57.583 --> 00:22:59.159
그렇게 비교 대상이
되는 겁니다, 됐어요?

00:22:59.259 --> 00:23:02.559
그다음에 부정 표현에
따른 중의성인데요.

00:23:02.659 --> 00:23:06.920
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 한
명도 안 왔다는 뜻도 되겠고,

00:23:07.020 --> 00:23:10.486
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분만
왔다,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.

00:23:10.586 --> 00:23:12.268
그렇게 중의성이 나타나는데.

00:23:12.368 --> 00:23:14.797
네 번째, 중의성 해소 방법입니다.

00:23:14.897 --> 00:23:18.364
중의성 해소 방법 중에
네 번째는 뭐냐면

00:23:18.464 --> 00:23:21.139
보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

00:23:21.239 --> 00:23:24.714
뭐냐면 손님이 다는 오지 않았다.

00:23:24.814 --> 00:23:26.405
는,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.

00:23:26.505 --> 00:23:28.794
다는 오지 않았다고
하는 것은 뭐냐면

00:23:28.894 --> 00:23:30.946
일부분은 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23:31.046 --> 00:23:34.164

이렇게 보조사를 넣어서
중의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.

00:23:34.264 --> 00:23:38.747
예전에 수능 시험에 나왔던 중의성,
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?

00:23:38.847 --> 00:23:39.956
보세요.

00:23:40.056 --> 00:23:46.897
나는 신발을 신고 있다,
이런 문장이 있어요.

00:23:46.997 --> 00:23:48.402
질문할게요, 여러분.

00:23:48.502 --> 00:23:49.538
두 가지로 해석됩니다.

00:23:49.638 --> 00:23:51.758
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될까요?

00:23:51.858 --> 00:23:54.882
첫 번째는 뭐냐면 신발을
신고 있다라고 하면

00:23:54.982 --> 00:23:57.084
신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.

00:23:57.184 --> 00:23:59.969
두 번째는 뭐냐면 신발
끈을 묶고 있는 상태.

00:24:00.069 --> 00:24:02.673
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.

00:24:02.773 --> 00:24:05.499
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고, 그다음에
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 있는

00:24:05.599 --> 00:24:06.810
그 상태를 뜻하는 거죠.

00:24:06.910 --> 00:24:07.954
이해되시나요?

00:24:08.054 --> 00:24:10.530
이런 것도 역시 수능시험에 한
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

00:24:10.630 --> 00:24:12.679
어려운데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?

00:24:12.779 --> 00:24:19.926
나는 우연찮게 철수를 만났다.

00:24:20.026 --> 00:24:23.915
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
해석되거든요.

00:24:24.015 --> 00:24:26.598

이런 거 막 퀴즈 내고
이러던데, 퀴즈 한번 내볼까?

00:24:26.698 --> 00:24:28.440

나는 우연찮게 철수를 만났다.

00:24:28.540 --> 00:24:29.534

왜 두 가지로 해석될까요?

00:24:29.634 --> 00:24:30.820

맞혀 보세요.

00:24:30.920 --> 00:24:34.610

이렇게 막 맞히면 선물 싸주고 이런
거 멋있어 보이던데, 그렇지?

00:24:34.710 --> 00:24:35.656

맞혀 보세요.

00:24:35.756 --> 00:24:38.471

우선 답을 얘기하면
우연찮게라고 하는 게

00:24:38.571 --> 00:24:43.480

우선 정답은 첫 번째 보면
우연찮게가 무슨 뜻이에요.

00:24:43.580 --> 00:24:46.079

우연하지 않게, 이런 뜻이죠?

00:24:46.179 --> 00:24:48.667

우연하지 않게, 그렇죠?

00:24:48.767 --> 00:24:52.556

나는 우연하지 않게 철수를 만났다는
얘기는 의도적으로 만났다,

00:24:52.656 --> 00:24:54.204

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.

00:24:54.304 --> 00:24:57.907

그런데 우연찮게라고 하는 게
일반적인 우리 표현에서는

00:24:58.007 --> 00:25:02.788

일상적으로 나 우연찮게 ~했잖아라고
하면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.

00:25:02.888 --> 00:25:07.163

일반적인 상투적 표현으로는 이걸
우연히 만났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25:07.263 --> 00:25:09.316

우연하게 만났다, 이런
뜻도 되는 거죠.

00:25:09.416 --> 00:25:10.551

다시 설명할게, 애들아.

00:25:10.651 --> 00:25:14.591

나 우연찮게 철수 만났어라고 하면
우연히 만났다, 이런 뜻이잖아요.

00:25:14.691 --> 00:25:16.774
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때.

00:25:16.874 --> 00:25:19.935
그런데 그 우연찮게라는 표현을
보면 뭐의 준말이냐면

00:25:20.035 --> 00:25:22.250
우연하지 않계의 준말이거든요.

00:25:22.350 --> 00:25:24.324
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될
수 있는 겁니다.

00:25:24.424 --> 00:25:27.834
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가
나온 적 있었습니다.

00:25:27.934 --> 00:25:32.007
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
00:25:32.107 --> 00:25:34.391
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.

00:25:34.491 --> 00:25:36.813
의미를 지나서 이제 담화라고
하는 게 있습니다.

00:25:36.913 --> 00:25:41.466
담화라고 하면 우리가
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,

00:25:41.566 --> 00:25:42.962
이런 것들을 바로 담화라고 합니다.

00:25:43.062 --> 00:25:46.731
담화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
나눌 수 있는데요.

00:25:46.831 --> 00:25:51.342
정보 제공 담화, 즉 다시 말하면
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.

00:25:51.442 --> 00:25:53.535
어떤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거고.

00:25:53.635 --> 00:25:56.078
강의, 뉴스, 보도, 보고서,
안내문 이런 것들이죠.

00:25:56.178 --> 00:25:58.899
호소 담화라고 하는 건데
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고.

00:25:58.999 --> 00:26:01.023
광고문, 설교, 연설 이런 거고요.

00:26:01.123 --> 00:26:03.928

약속 담화는 일정한 행위를
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.

00:26:04.028 --> 00:26:07.573

맹세, 선서, 계약서, 보증서
이런 것들이 약속 담화인데

00:26:07.673 --> 00:26:09.298

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.

00:26:09.398 --> 00:26:12.390

그다음 사교 담화라고
하는 건 뭐냐면

00:26:12.490 --> 00:26:16.078

사교는 우리 친구들 사귀는 거 이런
것들이 전부 다 사교 담화에요.

00:26:16.178 --> 00:26:18.770

주로 심리적 정서를 전달해서
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한다.

00:26:18.870 --> 00:26:20.258

잡담하는 것도 사교
담화입니다, 여러분.

00:26:20.358 --> 00:26:21.155

친구 관계.

00:26:21.255 --> 00:26:24.532

인사, 소개, 환영
인사, 편지, 조문.

00:26:24.632 --> 00:26:27.117

조문이라고 하는 것은
뭐냐면 상갓집 가는 거,

00:26:27.217 --> 00:26:29.094

죽은 사람 이렇게
위로하러 가는 거.

00:26:29.194 --> 00:26:30.702

이런 것들이 바로 조문이죠.

00:26:30.802 --> 00:26:32.511

선언 담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26:32.611 --> 00:26:34.621

의견이나 주장 등을
정식으로 표명함으로써

00:26:34.721 --> 00:26:37.054

새로운 상황을 불러일으킨다.

00:26:37.154 --> 00:26:40.626

개회 선언, 선전 포고문,
유언장, 임명장 이런 것들이

00:26:40.726 --> 00:26:44.165

바로 선언 담화에 해당하는 거겠죠.

00:26:44.265 --> 00:26:49.840

그다음에 전달 매체가, 전달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.

00:26:49.940 --> 00:26:51.988

뭐냐면 문자 담화가 있어요.

00:26:52.088 --> 00:26:55.540

문자로 전달하는 거고, 글, 문자 메시지 이런 거겠죠.

00:26:55.640 --> 00:26:57.821

음성 담화는 음성을 매개로 전달한다.

00:26:57.921 --> 00:27:00.870

대화, 토의, 전화 통화 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

00:27:00.970 --> 00:27:05.193

담화의 목적 및 방법을 보시면, 목적은 담화라고 하면

00:27:05.293 --> 00:27:09.497

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, 요청, 축하, 감탄, 약속, 명령, 질문, 제안 등의

00:27:09.597 --> 00:27:12.289

기능을 하며, 한 가지 담화에 여러 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

00:27:12.389 --> 00:27:13.221

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

00:27:13.321 --> 00:27:17.306

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답지 않나라고 얘기하면

00:27:17.406 --> 00:27:21.126

그거는 문을 닫아달라,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27:21.226 --> 00:27:24.323

답지 않니,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.

00:27:24.423 --> 00:27:27.307

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

00:27:27.407 --> 00:27:29.894

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.

00:27:29.994 --> 00:27:34.105

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27:34.205 --> 00:27:37.387

직접 발화는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발화의 기능을 드러낸다.

00:27:37.487 --> 00:27:42.439
즉, 이게 뭐냐면 문장 유형과
발화 의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.

00:27:42.539 --> 00:27:46.177
다시 말하면 문장 유형이 문
단아라라고 얘기를 하면

00:27:46.277 --> 00:27:49.530
문 단아라라고 하는 게 문장
유형이 명령문이잖아요.

00:27:49.630 --> 00:27:53.327
명령의 뜻을 내포하고 있을
때 직접 발화라고 합니다.

00:27:53.427 --> 00:27:55.864
상황보다 의도가 우선 고려된다.

00:27:55.964 --> 00:27:59.215
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
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요.

00:27:59.315 --> 00:28:01.948
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좀
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

00:28:02.048 --> 00:28:03.740
직접 발화죠.

00:28:03.840 --> 00:28:06.944
직접 알고 싶다는 걸 직접
의사를 전달하는 거니까

00:28:07.044 --> 00:28:08.726
직접 발화에 해당하는 거고요.

00:28:08.826 --> 00:28:12.173
간접 발화는 수신자가
발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

00:28:12.273 --> 00:28:13.990
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.

00:28:14.090 --> 00:28:16.479
그러니까 은근히 돌려서
얘기하는 거예요.

00:28:16.579 --> 00:28:18.685
문장 유형과 발화
의도가 불일치한다.

00:28:18.785 --> 00:28:21.849
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지
않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

00:28:21.949 --> 00:28:24.326
답지 않니, 창문 좀 열어라
아니면 에어컨을 켜라.

00:28:24.426 --> 00:28:26.842

이런 의미가 내포되어
있는 거잖아요.

00:28:26.942 --> 00:28:30.184
의도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
거죠, 상황에 맞춰서.

00:28:30.284 --> 00:28:32.558
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
달라지며 공손한 표현을

00:28:32.658 --> 00:28:33.795
사용하고자 할 때.

00:28:33.895 --> 00:28:36.690
특히 요청의 경우는
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

00:28:36.790 --> 00:28:38.447
일부러 이런 의문문을 쓰는 거죠.

00:28:38.547 --> 00:28:41.637
문 달아라, 이거보다는 문
좀 달아주면 어땠겠어요라는

00:28:41.737 --> 00:28:47.074
이런 의문의 표현을 씬으로써
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

00:28:47.174 --> 00:28:49.077
간접 발화가 되는 거예요.

00:28:49.177 --> 00:28:53.194
사용되는 예를 보니까 문 옆에
앉은 친구에게 좀 춥지 않니?

00:28:53.294 --> 00:28:57.374
문을 달아달라는 요청의
의미를 나타내고 있죠.

00:28:57.474 --> 00:28:59.919
문제로 개념 확인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9:00.019 --> 00:29:01.343
보세요.

00:29:01.443 --> 00:29:06.158
지금-이제-현재는 어떤 관계일까요?

00:29:06.258 --> 00:29:08.670
지금-이제-현재는 유의
관계의 단어들이입니다.

00:29:08.770 --> 00:29:10.286
뜻이 비슷한 거니까요.

00:29:10.386 --> 00:29:13.597
악기와 현악기는 상하
관계에 해당하죠.

00:29:13.697 --> 00:29:15.977

악기 중에 현악기가
포함되는 거니까.

00:29:16.077 --> 00:29:20.707

형태소와 소리는 같지만, 의미가
서로 다른 단어를 뭐라고 하나면

00:29:20.807 --> 00:29:22.725

의미가 다르니까
동음이의어라고 하죠.

00:29:22.825 --> 00:29:26.817

그다음에 담화의 방법 중에 문장
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할 때

00:29:26.917 --> 00:29:28.182

그걸 뭐라고 합니까?

00:29:28.282 --> 00:29:30.265

간접 발화라고 합니다, 됐어요?

00:29:30.365 --> 00:29:34.956

그러면 유형 연습
두 개가 나왔는데요.

00:29:35.056 --> 00:29:37.749

유형 연습 두 개를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9:37.849 --> 00:29:39.698

첫 번째 볼까요?

00:29:39.798 --> 00:29:43.500

첫 번째, 보기의 ㉠, ㉡에 해당하는
예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.

00:29:43.600 --> 00:29:46.635

선생님, 다음 두 문장을
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

00:29:46.735 --> 00:29:48.630

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.

00:29:48.730 --> 00:29:50.624

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.

00:29:50.724 --> 00:29:52.487

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.

00:29:52.587 --> 00:29:55.041

여러분,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?

00:29:55.141 --> 00:29:58.822

이 가깝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
의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

00:29:58.922 --> 00:30:00.984

밑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.

00:30:01.084 --> 00:30:04.329

(1)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.

00:30:04.429 --> 00:30:07.570
즉, 다시 말하면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

00:30:07.670 --> 00:30:12.026
(2)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예요.

00:30:12.126 --> 00:30:14.878
그러니까 가깝다라는 의미가 두 개가 달라지는 거죠.

00:30:14.978 --> 00:30:17.699
이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.

00:30:17.799 --> 00:30:20.126
다시 말하면 다의 관계입니다, 두 개가.

00:30:20.226 --> 00:30:24.234
중심 의미가 되고, 추상화되어서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.

00:30:24.334 --> 00:30:26.053
주변 의미라고 하는 거.

00:30:26.153 --> 00:30:27.570
다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.

00:30:27.670 --> 00:30:30.368
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, 다의 관계입니다.

00:30:30.468 --> 00:30:31.916
다의어라고 한다.

00:30:32.016 --> 00:30:36.016
그러면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0:36.116 --> 00:30:39.231
우선 ㉠은 중심 의미, 주변 의미예요.

00:30:39.331 --> 00:30:41.985
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, 이거는 뭐야?

00:30:42.085 --> 00:30:45.941
높이가 낮다는 뜻이니까 중심 의미로 쓰인 게 맞죠.

00:30:46.041 --> 00:30:47.412
중심 의미로 쓰인 게 맞고요.

00:30:47.512 --> 00:30:48.931
환경에 따라, 보세요.

00:30:49.031 --> 00:30:50.854
관심도가 낮다는 거잖아요.

00:30:50.954 --> 00:30:53.302
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을
나타내고 있는 거니까

00:30:53.402 --> 00:30:55.358
이거는 주변 의미에 해당하죠.

00:30:55.458 --> 00:30:58.343
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,
1번이 정답입니다.

00:30:58.443 --> 00:31:01.347
그다음에 2번 보면, 이걸
어떻게 찾나면 애들아.

00:31:01.447 --> 00:31:05.600
여기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
사전에서 찾았을 때

00:31:05.700 --> 00:31:07.671
첫 번째 의미로 쓰였는지를
확인하는 거예요.

00:31:07.771 --> 00:31:09.522
그게 중심 의미가 되는 거니까.

00:31:09.622 --> 00:31:12.281
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
하면 크다는 뭐예요?

00:31:12.381 --> 00:31:13.879
크기가 크다잖아요.

00:31:13.979 --> 00:31:15.680
물리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31:15.780 --> 00:31:18.734
그런데 가능성이 크다 그랬으니까
이건 주변 의미겠고.

00:31:18.834 --> 00:31:21.572
기쁨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
역시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31:21.672 --> 00:31:23.878
기쁨이라고 하는 건
추상적인 거니까.

00:31:23.978 --> 00:31:26.836
두 팔을 최대한 넓게
벌렸다고 얘기했죠.

00:31:26.936 --> 00:31:29.887
두 팔을 최대한 넓게
벌렸다, 도로 폭이 넓어서.

00:31:29.987 --> 00:31:33.140

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고
하는 것은 좁다와 넓다,

00:31:33.240 --> 00:31:35.725
물리적인 거니까 이걸 중심
의미가 될 수 있죠.

00:31:35.825 --> 00:31:38.867
도로의 폭이 넓어서, 이것도
역시 중심 의미가 될 수 있죠.

00:31:38.967 --> 00:31:42.526
폭이 넓다고 얘기하는 거니까
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

00:31:42.626 --> 00:31:43.967
중심 의미예요.

00:31:44.067 --> 00:31:45.429
내 좁은 소견.

00:31:45.529 --> 00:31:47.459
소견이 좁아요, 의견이
좁은 거예요.

00:31:47.559 --> 00:31:50.066
의견은 추상적인 거니까
주변 의미가 되겠고.

00:31:50.166 --> 00:31:52.592
마음이 좁아서, 이것도
역시 주변 의미죠.

00:31:52.692 --> 00:31:54.191
마음은 추상적인 거니까요.

00:31:54.291 --> 00:31:56.459
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.

00:31:56.559 --> 00:32:00.027
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
힘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

00:32:00.127 --> 00:32:03.065
그러니까 이거는 주변
의미에 해당하는 거고.

00:32:03.165 --> 00:32:06.524
운동장이 작다 이거는 운동장이
실제로 작다, 물리적으로 작다

00:32:06.624 --> 00:32:09.256
이런 거니까 중심 의미에
해당하는 거죠.

00:32:09.356 --> 00:32:12.863
이런 것들은 여러분, 언어
감각적인 면도 있어야겠지만,

00:32:12.963 --> 00:32:17.008
앞을 다시 한번 보시면

공간과 관련된 중심 의미.

00:32:17.108 --> 00:32:18.088
이게 중요하죠.

00:32:18.181 --> 00:32:20.131
추상화되었다 이 말이
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32:20.231 --> 00:32:24.278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낮다, 낮은 곳 할 때

00:32:24.378 --> 00:32:27.412
그게 추상적인 의미와 관련되어
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

00:32:27.512 --> 00:32:31.353
그게 주변 의미라고 하는 걸
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

00:32:31.453 --> 00:32:35.608
그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.

00:32:35.708 --> 00:32:36.736
2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32:36.836 --> 00:32:42.444
문제가 좀 길어서, 이런 문제 풀면
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너무 길어요.

00:32:42.544 --> 00:32:44.977
그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.

00:32:45.077 --> 00:32:49.941
길어서 문제 풀다가 좀
지치는 게 사실이에요.

00:32:50.041 --> 00:32:50.739
가볼게요.

00:32:50.839 --> 00:32:53.519
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
활동을 위한 자료이다.

00:32:53.619 --> 00:32:57.756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32:57.856 --> 00:33:02.110
보시면 여기를 보시면
우선 이걸 한번 보죠.

00:33:02.210 --> 00:33:05.039
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,
이건 발음이에요, 발음.

00:33:05.139 --> 00:33:08.531
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
이게 이렇게 빠져 있죠.

00:33:08.631 --> 00:33:11.083

1번이라고 되어 있고,
여기 부라고 되어 있죠.

00:33:11.183 --> 00:33:12.238

이게 무슨 뜻입니까?

00:33:12.338 --> 00:33:13.499

부사라는 뜻입니다, 부사.

00:33:13.599 --> 00:33:15.079

이게 부라고 하는 게 부사예요.

00:33:15.179 --> 00:33:16.147

글자가 빠져 있죠.

00:33:16.247 --> 00:33:17.330

부사입니다.

00:33:17.430 --> 00:33:18.635

그다음에 보세요, 여러분.

00:33:18.735 --> 00:33:21.383

1번, 2번 이렇게 쓰여 있죠,
이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?

00:33:21.483 --> 00:33:25.009

1번, 2번 이런 관계를 바로
다의 관계라고 하죠, 왜?

00:33:25.109 --> 00:33:29.600

같이라고 하는 이 뜻의 설명이
나온 거니까 하나의 단어잖아요.

00:33:29.700 --> 00:33:32.577

그러니까 이거는 다의
관계라고 얘기합니다.

00:33:32.677 --> 00:33:35.954

그러면 밑에 보시면 둘 이상의
사람이나 사물이 함께.

00:33:36.054 --> 00:33:38.449

이런 표시는, 친구와 같이
앞에 이런 표시는 뭐냐면

00:33:38.549 --> 00:33:40.707

이런 걸 용례라고 합니다, 용례.

00:33:40.807 --> 00:33:44.305

사용되는 사례라고 해서
용례라고 합니다, 아시겠죠?

00:33:44.405 --> 00:33:46.609

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.

00:33:46.709 --> 00:33:49.465

어떤 상황이나 행동
따위와 다름이 없이.

00:33:49.565 --> 00:33:54.546

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
떨어졌다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33:54.646 --> 00:34:01.381
그다음에 보면 여기는 2번이라고 되어
있고,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.

00:34:01.481 --> 00:34:05.501
그러니까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,
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.

00:34:05.601 --> 00:34:08.139
문제가 딱 봐도 좀 어려워
보인다, 그렇죠?

00:34:08.239 --> 00:34:12.623
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
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낸다.

00:34:12.723 --> 00:34:14.979
얼음장같이, 이때는 조사예요.

00:34:15.079 --> 00:34:16.577
달라지는 게 뭔가요?

00:34:16.677 --> 00:34:18.315
앞에하고 여기하고 달라지는 게?

00:34:18.415 --> 00:34:20.900
친구와 같이, 이거
띄어쓰기가 되어 있죠.

00:34:21.000 --> 00:34:22.749
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.

00:34:22.849 --> 00:34:26.351
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는 앞에
체언과 붙어 쓰인다는 걸

00:34:26.451 --> 00:34:27.515
확인할 수 있겠죠.

00:34:27.615 --> 00:34:30.214
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
강조하는 격 조사인데요.

00:34:30.314 --> 00:34:34.808
새벽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가 의미를
강조하는 격 조사가 되는 거죠.

00:34:34.908 --> 00:34:39.864
그다음에 같이하다라고 하면,
여기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

00:34:39.964 --> 00:34:41.519
이상하게 쓰여 있네요.

00:34:41.619 --> 00:34:43.101
동사라고 쓰여 있습니다.

00:34:43.201 --> 00:34:45.130

동사이고, ~과.

00:34:45.230 --> 00:34:46.894

잘 보세요, 여기
괄호가 쓰여 있죠.

00:34:46.994 --> 00:34:49.688

~을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
은은 괄호가 없잖아요.

00:34:49.788 --> 00:34:53.477

그럼 같이하다는 것은 ~을이라고
하는 걸 반드시 필요로 한다,

00:34:53.577 --> 00:34:54.707

이런 뜻입니다.

00:34:54.807 --> 00:34:56.043

필수 성분이라는 거예요.

00:34:56.143 --> 00:35:00.166

다시 말하면 ~은 ~을
같이하다라고 할 때

00:35:00.266 --> 00:35:02.136

이거는 두 자리 서술어가
될 수 있다는 거죠.

00:35:02.236 --> 00:35:03.570

~을이라고 하니까.

00:35:03.670 --> 00:35:06.361

그런데 ~와, 과를 쓸
때도 있다는 얘기에요.

00:35:06.461 --> 00:35:11.124

그러면 ~와, 과를 쓸 때도 있다는
얘기니까 세 자리 서술어도

00:35:11.224 --> 00:35:12.519

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35:12.619 --> 00:35:14.924

경험이나 생활 따위를
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.

00:35:15.024 --> 00:35:16.133

함께하다는 뜻이야.

00:35:16.233 --> 00:35:17.007

보세요.

00:35:17.107 --> 00:35:19.909

친구와 침식을 같이 하다,
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.

00:35:20.009 --> 00:35:22.849

평생을 같이 하다,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35:22.949 --> 00:35:26.788

~와 ~을 같이 하다, 이런
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.

00:35:26.888 --> 00:35:31.357
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어떤 뜻이나
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.

00:35:31.457 --> 00:35:32.937
함께하다 두 번째인데.

00:35:33.037 --> 00:35:36.429
그와 의견을 같이하다, 견해를
같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35:36.529 --> 00:35:39.180
그러니까 사전 풀이에
대한 내용인데.

00:35:39.280 --> 00:35:42.258
여러분이 이 문제는 사전을
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를

00:35:42.358 --> 00:35:44.108
다 살펴보실 필요 없죠,
시간 없으니까요.

00:35:44.208 --> 00:35:48.672
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면 밑에
선택지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

00:35:48.772 --> 00:35:50.764
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

00:35:50.864 --> 00:35:52.488
가볼까요?

00:35:52.588 --> 00:35:55.325
같이의 품사 정보와
뜻풀이로 봤을 때,

00:35:55.425 --> 00:35:59.606
품사 정보가 아까 뭐였냐면 부,
조, 동 이렇게 쓰여 있는 게

00:35:59.706 --> 00:36:01.205
전부 다 품사 정보입니다.

00:36:01.305 --> 00:36:06.790
뜻풀이를 보니까 같이는 부사로도
쓰이고,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.

00:36:06.890 --> 00:36:08.558
아까 조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.

00:36:08.658 --> 00:36:11.113
그러니까 적절한 거죠,
조사로 쓰이는 거니까.

00:36:11.213 --> 00:36:12.227
맞습니까?

00:36:12.327 --> 00:36:15.972

그다음에 2번 보시면 같이
뜻풀이와 용례를 보니까

00:36:16.072 --> 00:36:18.405

같이, 이거 빠졌네요.

00:36:18.505 --> 00:36:26.395

2-1의 용례로, 2-1의
용례가 뭔지 봐야죠.

00:36:26.495 --> 00:36:33.754

2-1 보면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
어떤 특징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

00:36:33.854 --> 00:36:36.243

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.

00:36:36.343 --> 00:36:41.056

그러니까 이거는 뭘 구분하셔야
되냐면 앞에 나왔던 용례하고

00:36:41.156 --> 00:36:44.531

이 용례하고 뜻풀이가
유사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

00:36:44.631 --> 00:36:50.386

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는 것은
어떤 용례에 해당하는 걸까요?

00:36:50.486 --> 00:36:52.089

어떤 용도와 비슷합니까?

00:36:52.189 --> 00:36:56.054

2-2번과 비슷하죠.

00:36:56.154 --> 00:36:59.550

2-2번 보면 그때를 강조하는
거니까 매일이라는 시간을

00:36:59.650 --> 00:37:01.730

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.

00:37:01.830 --> 00:37:04.546

그러니까 새벽같이 떠나다
이거하고 똑같은 게

00:37:04.646 --> 00:37:08.220

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니까
2-1이 아니고요.

00:37:08.320 --> 00:37:12.659

2-2에 해당하는 거고, 똑같은 거니까
정답이 2번이 정답인 거예요.

00:37:12.759 --> 00:37:14.666

3번을 볼까요?

00:37:14.766 --> 00:37:18.110

같이 와 같이하다의 표제어
및 뜻풀이를 보니까

00:37:18.210 --> 00:37:22.662

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
결합한 복합어로구나, 왜?

00:37:22.762 --> 00:37:24.612

같이의 뜻이 있느냐는 거죠.

00:37:24.712 --> 00:37:29.749

더붙어하다, 동일하게 가지다,
이런 거니까 하다는 뜻.

00:37:29.849 --> 00:37:32.876

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
같이하다에 뭐가 되어 있냐면

00:37:32.976 --> 00:37:34.252

맞출표가 되어 있잖아요.

00:37:34.352 --> 00:37:38.952

같이와 하다가 결합됐다는 걸 보여주고
있는 거니까 복합어로군, 맞습니다.

00:37:39.052 --> 00:37:44.004

같이하다는의 문형 정보 및, 문형,
글자 형태의 정보 및 용례를 보니까

00:37:44.104 --> 00:37:45.883

같이하다는, 보세요.

00:37:45.983 --> 00:37:48.576

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
뭐냐면 두 자리 서술어로도

00:37:48.676 --> 00:37:50.784

쓰일 수 있고, 아까
제가 설명했던 거죠.

00:37:50.884 --> 00:37:54.976

~을이라고 하면 그때는
두 자리 서술어지만

00:37:55.076 --> 00:38:00.711

~과 ~을이라고 쓴다면 이때
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.

00:38:00.811 --> 00:38:04.495

물론 당연히 앞에 주어는 있는 거니까
같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

00:38:04.595 --> 00:38:06.703

을도 필요하고, 목적어도 필요하고,

00:38:06.803 --> 00:38:09.383

~와, ~과 같은
부사어도 필요한 거예요.

00:38:09.483 --> 00:38:13.289

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필수
부사어가 되는 거겠죠.

00:38:13.389 --> 00:38:17.597

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
보니까 평생을 같이 한 부부의

00:38:17.697 --> 00:38:20.628

같이한은 함께한으로
교체하여 쓸 수 있다.

00:38:20.728 --> 00:38:24.785

앞에 보면 같이하다라고
하면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

00:38:24.885 --> 00:38:26.234

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.

00:38:26.334 --> 00:38:27.864

평생 동안 같이하다, 함께하다.

00:38:27.964 --> 00:38:31.033

의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
바뀌 쓸 수 있겠죠.

00:38:31.133 --> 00:38:32.352

정답은 2번.

00:38:32.452 --> 00:38:34.104

이런 문체들이 좀
까다롭습니다, 여러분.

00:38:34.204 --> 00:38:35.917

좀 복잡하기도 하고요.

00:38:36.017 --> 00:38:39.461

좀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이럴
때 제일 여러분 짜증나는 게

00:38:39.561 --> 00:38:41.364

어떤 거냐면, 시험 볼 때
제일 짜증 나는 게 뭐예요?

00:38:41.464 --> 00:38:44.420

내가 이렇게 한참 풀고 있는데 옆에서
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

00:38:44.520 --> 00:38:46.744

모의고사 이렇게 보는데 옆
친구는 막 넘어가는 거.

00:38:46.844 --> 00:38:48.514

그 친구들은 몰라서 그러는
겁니다, 아시겠죠?

00:38:48.614 --> 00:38:50.618

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, 대충.

00:38:50.718 --> 00:38:52.148

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.

00:38:52.248 --> 00:38:54.175

거기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.

00:38:54.275 --> 00:38:55.594
3번을 볼게요.

00:38:55.694 --> 00:38:58.478
보기 ㉠~㉡에 들어갈 말을
올바르게 짝지은 것을

00:38:58.578 --> 00:39:01.337
한번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죠.

00:39:01.437 --> 00:39:03.054
보기의 ㉠~㉡에 들어갈 말.

00:39:03.154 --> 00:39:07.008
영희의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
착해라고 말씀하셨다.

00:39:07.108 --> 00:39:09.038
이거는 직접 인용일 때.

00:39:09.138 --> 00:39:10.344
따옴표 있잖아요.

00:39:10.444 --> 00:39:13.470
따옴표 있을 때는 ~라고 써요.

00:39:13.570 --> 00:39:19.286
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
착하다고 말씀하셨다.

00:39:19.386 --> 00:39:20.773
이게 무슨 얘기냐.

00:39:20.873 --> 00:39:24.782
직접 따옴표 있을 때는 영희
어머니께서는 듣고 있는 상대방이니까

00:39:24.882 --> 00:39:28.017
너의 동생은 착해, 이렇게 쓰죠.

00:39:28.117 --> 00:39:31.779
그런데 내가 따옴표 없이
쓴다면 영희 어머니께서

00:39:31.879 --> 00:39:33.566
내 동생이라고 써야죠.

00:39:33.666 --> 00:39:37.210
이거는 가리키는 바가 누구인지를
확인하시면 풀 수 있어요.

00:39:37.310 --> 00:39:41.815
내 동생은 착하다고 말씀하셨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39:41.915 --> 00:39:42.822
볼게요.

00:39:42.922 --> 00:39:48.034
㉠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, 발화는
문장입니다, 말한 문장이예요.

00:39:48.134 --> 00:39:49.717
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,

00:39:49.817 --> 00:39:52.362
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
쓴 간접 인용입니다.

00:39:52.462 --> 00:39:55.513
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
인용으로 바꿀 때나

00:39:55.613 --> 00:39:59.788
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
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.

00:39:59.888 --> 00:40:02.076
여기에서는 착해인데 착하다
이렇게 바뀌었잖아요.

00:40:02.176 --> 00:40:06.620
어미, 인용 조사, 라고가
아니고 고 이런 조사죠.

00:40:06.720 --> 00:40:08.813
그다음에 대명사 네, 내.

00:40:08.913 --> 00:40:11.336
지시 표현도 바뀔 수 있어요.

00:40:11.436 --> 00:40:13.938
이, 그, 저 이런 지시
표현도 바뀔 수 있고.

00:40:14.038 --> 00:40:16.366
높임 표현에 변화가
생길 수 있습니다.

00:40:16.466 --> 00:40:20.205
이거는 사실은 진짜 어려운
건 누가 어려워할 문제냐면

00:40:20.305 --> 00:40:22.483
외국인들은 이거 진짜
어려울 거예요, 아마.

00:40:22.583 --> 00:40:24.563
그런데 우리는 그렇게
어렵지는 않아요, 여러분.

00:40:24.663 --> 00:40:27.567
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가리키는
바가 누구인지만 확인하시면

00:40:27.667 --> 00:40:28.949
어렵지는 않아요.

00:40:29.049 --> 00:40:30.171
보겠습니다.

00:40:30.271 --> 00:40:32.662

아들이 어제 저에게, 잘 봐요.

00:40:32.762 --> 00:40:35.406

헛갈릴 것 같다, 웬지
헛갈릴 것 같다, 그렇지?

00:40:35.506 --> 00:40:38.395

아들이 어제, 어제 얘기한 거야.

00:40:38.495 --> 00:40:42.286

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
계십시오라고 말했다.

00:40:42.386 --> 00:40:43.632

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예요?

00:40:43.732 --> 00:40:44.906

오늘이 되는 거잖아요.

00:40:45.006 --> 00:40:46.716

벌써 어렵다, 그렇죠?

00:40:46.816 --> 00:40:47.872

보세요.

00:40:47.972 --> 00:40:52.901

그러면 간접 인용이라고
하면 아들이 어제 저에게

00:40:53.001 --> 00:40:55.044

㉠에 들어갈 말은 뭡까요?

00:40:55.144 --> 00:40:57.838

㉠에 들어갈 말은
오늘이겠죠, 오늘.

00:40:57.938 --> 00:41:01.199

그러니까 어제 내일이라고
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들이

00:41:01.299 --> 00:41:08.465

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,
여기에서 아들은 계십시오라고

00:41:08.565 --> 00:41:12.942

얘기하겠지만, 이 아버지인 사람이
스스로 뭐라고 얘기할까?

00:41:13.042 --> 00:41:16.712

아들이 어제 저에게
사무실에 계시라고 쓸까요?

00:41:16.812 --> 00:41:17.949

안 쓰겠죠.

00:41:18.049 --> 00:41:19.961

사무실에 있으라고라고 하겠죠.

00:41:20.061 --> 00:41:21.548

자기 자신을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.

00:41:21.648 --> 00:41:30.220
선생님이 애들아, 아까 선생님이
점심 식사를 하셨거든, 내가?

00:41:30.320 --> 00:41:31.756
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.

00:41:31.856 --> 00:41:34.065
진지를 드셨거든, 내가
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.

00:41:34.165 --> 00:41:38.129
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
거니까 ㉔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

00:41:38.229 --> 00:41:41.047
사무실에 있으라고가 되겠죠.

00:41:41.147 --> 00:41:42.504
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

00:41:42.604 --> 00:41:43.664
어렵지 않아요.

00:41:43.764 --> 00:41:44.680
갑니다.

00:41:44.780 --> 00:41:46.620
언니는 어제 얘기했어요, 어제.

00:41:46.720 --> 00:41:49.850
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
남겨라라고 나에게 말을 했다.

00:41:49.950 --> 00:41:51.312
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?

00:41:51.412 --> 00:41:52.846
언니죠, 언니.

00:41:52.946 --> 00:41:53.979
그렇지 않겠어요?

00:41:54.079 --> 00:41:56.792
그러면 언니는 언제, 그러면
뭐라고 하면 될까?

00:41:56.892 --> 00:41:58.530
자기의 이렇게 써야죠.

00:41:58.630 --> 00:42:02.201
언니 자기니까,
연애할 때 그 자기 아닙니다.

00:42:02.301 --> 00:42:07.318
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니까
언니는 어제 자기의 휴대전화에

00:42:07.418 --> 00:42:11.014
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말했다
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?

00:42:11.114 --> 00:42:15.203

꼭 남기라고 나에게 말했다
이렇게 써야겠죠.

00:42:15.303 --> 00:42:16.736

구별할 수 있겠죠, 여러분?

00:42:16.836 --> 00:42:19.412

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제
확인하면 돼요, ㉠는.

00:42:19.512 --> 00:42:22.427

결국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게
언제를 가리키는지 보면 되고.

00:42:22.527 --> 00:42:24.934

높임 있었으니까 이건 높임말
없애면 되는 거잖아요.

00:42:25.034 --> 00:42:28.157

그다음에 언니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
거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을

00:42:28.257 --> 00:42:32.015

이걸 재귀대명사라고 하는데, 이런
재귀대명사 쓰면 되는 거고.

00:42:32.115 --> 00:42:35.686

남겨라라고가 아니고 남기라고,
이렇게 쓰면 되겠죠.

00:42:35.786 --> 00:42:38.513

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

00:42:38.613 --> 00:42:41.544

뒤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2:41.644 --> 00:42:44.173

유형 연습 두 번째 가 볼게요.

00:42:44.273 --> 00:42:47.426

보기의 ㉠~㉣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42:47.526 --> 00:42:49.787

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2:49.887 --> 00:42:52.092

안녕,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니?

00:42:52.192 --> 00:42:54.555

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.

00:42:54.655 --> 00:42:57.628

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
책들을 사주셨는데

00:42:57.728 --> 00:43:00.129

이것도, 이것은 뭐예요?

00:43:00.229 --> 00:43:01.963
손에 들고 있는 그거겠죠.

00:43:02.063 --> 00:43:04.248
그것 중의 하나예요,
그것은 바로 뭐예요?

00:43:04.348 --> 00:43:07.327
책들을 사주셨는데 할 때
책들이 바로 그것이겠죠.

00:43:07.427 --> 00:43:08.660
구분할 수 있겠니, 애들아?

00:43:08.760 --> 00:43:09.978
그것 중 하나예요.

00:43:10.078 --> 00:43:12.851
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,
이거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43:12.951 --> 00:43:15.109
이 당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
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

00:43:15.209 --> 00:43:17.446
할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.

00:43:17.546 --> 00:43:18.476
외우셔야 돼요, 여러분.

00:43:18.576 --> 00:43:21.395
이 당신이라는 단어는 2인칭으로
쓰일 수도 있어요.

00:43:21.495 --> 00:43:23.541
당신 누구냐 할 때는
you를 뜻하는 거지만,

00:43:23.641 --> 00:43:26.995
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
직접 골라 할 때 그 당신은

00:43:27.095 --> 00:43:33.834
할아버지를, 여기 없는 제3자인
할아버지를 극존칭으로 높이는 거예요.

00:43:33.934 --> 00:43:35.539
이 당신이라는 단어는
3인칭입니다, 여러분.

00:43:35.639 --> 00:43:36.423
극존칭입니다.

00:43:36.523 --> 00:43:37.522
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예요.

00:43:37.622 --> 00:43:38.990
이런 거죠.

00:43:39.090 --> 00:43:43.661

할머니, 당신께서는 늘 나를
아껴주셨지라고 하면, 보세요.

00:43:43.761 --> 00:43:44.888
2인칭은 절대 아니죠.

00:43:44.988 --> 00:43:46.881
할머니 당신께서는 이거
아니잖아요, 그렇죠?

00:43:46.981 --> 00:43:52.076
여기 없는 할머니를 회상하면서,
생각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.

00:43:52.176 --> 00:43:54.324
그래서 그때는 3인칭입니다,
극존칭이에요.

00:43:54.424 --> 00:43:56.892
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
주신답니다, 할아버지입니다.

00:43:56.992 --> 00:43:58.894
선생님, 그렇구나.

00:43:58.994 --> 00:44:02.525
우리 집 아이들도, 우리라고 하는
것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,

00:44:02.625 --> 00:44:04.003
선생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.

00:44:04.103 --> 00:44:05.157
복수가 아닙니다, 이때는.

00:44:05.257 --> 00:44:06.501
복수형처럼 표현하지만.

00:44:06.601 --> 00:44:08.497
우리 집 아이들로 공룡
책을 참 좋아하지.

00:44:08.597 --> 00:44:12.005
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,
저희가 바로 누구예요?

00:44:12.105 --> 00:44:14.835
원래 이 저희라는 단어도
역시 1인칭이거든요.

00:44:14.935 --> 00:44:18.296
그 일은 저희들이 할게요라고
하면 1인칭이지만,

00:44:18.396 --> 00:44:22.833
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할 때 이
저희는 여기 없는 그 아이들을

00:44:22.933 --> 00:44:26.271
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
3인칭이 되는 겁니다.

00:44:26.371 --> 00:44:30.750
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라고
얘기를 했습니다.

00:44:30.850 --> 00:44:31.775
1번 보조.

00:44:31.875 --> 00:44:35.335
㉠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
대상, 곧 학생이 들고 있는

00:44:35.435 --> 00:44:36.403
책을 나타낸다.

00:44:36.503 --> 00:44:37.653
이것도, 그렇죠?

00:44:37.753 --> 00:44:39.978
이것은 학생에 가까운 거니까.

00:44:40.078 --> 00:44:42.889
이것도 자기, 학생이 자기
자신에게 가까운 거니까

00:44:42.989 --> 00:44:44.200
이것이라고 쓰는 거죠.

00:44:44.300 --> 00:44:46.818
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
가리킨다, 맞죠.

00:44:46.918 --> 00:44:50.049
2번, ㉡은 앞서 언급한 대상
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을 뜻한다.

00:44:50.149 --> 00:44:51.780
아까 설명했던 거 맞죠.

00:44:51.880 --> 00:44:54.182
㉢은 3인칭으로 사용됐다.

00:44:54.282 --> 00:44:55.669
당신, 3인칭입니다.

00:44:55.769 --> 00:44:57.446
㉣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.

00:44:57.546 --> 00:45:00.262
여기에서 우리 집 아이들
할 때는 나의 집이니까

00:45:00.362 --> 00:45:03.006
그 학생을 포함하고
있는 게 아니죠.

00:45:03.106 --> 00:45:04.053
4번도 맞고요.

00:45:04.153 --> 00:45:05.136
㉤은 1인칭.

00:45:05.236 --> 00:45:06.397

선생님이 얘기했죠?

00:45:06.497 --> 00:45:11.240

1인칭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3인칭으로
사용된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45:11.340 --> 00:45:13.150

그다음 보겠습니다.

00:45:13.250 --> 00:45:15.060

2번 문제를 가볼게요.

00:45:15.160 --> 00:45:19.651

보기에 분류 절차에 따라서 A,
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을

00:45:19.751 --> 00:45:22.939

한번 골라 봐라라고
얘기를 했습니다.

00:45:23.039 --> 00:45:25.636

이게 여러분 뭐냐면요.

00:45:25.736 --> 00:45:28.802

들다의 의미를 확인한다.

00:45:28.902 --> 00:45:30.578

이게 중요합니다.

00:45:30.678 --> 00:45:33.733

유사성을 기준으로
분류를 하는 거예요.

00:45:33.833 --> 00:45:37.699

이 단어를 보면 애들아, 유사성을
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.

00:45:37.799 --> 00:45:39.805

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
00:45:39.905 --> 00:45:43.808

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하지만,
어휘력일 수 있을 것 같아.

00:45:43.908 --> 00:45:45.582

보세요.

00:45:45.682 --> 00:45:47.497

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.

00:45:47.597 --> 00:45:51.216

감기가 들다, 단풍이 들다,
반기를 들다, 가방을 들다,

00:45:51.316 --> 00:45:53.262

고개를 들다, 보험을 들다예요.

00:45:53.362 --> 00:45:54.254

구분할 수 있을까요?

00:45:54.354 --> 00:45:55.673

보세요.

00:45:55.773 --> 00:45:56.807

감기가 들다예요.

00:45:56.907 --> 00:45:59.204

ㄱ과 우선 ㄴ만 똑같은
뜻인지 한번 볼게요.

00:45:59.304 --> 00:46:00.969

감기가 들다, 가방을 들다.

00:46:01.069 --> 00:46:02.531

똑같은 의미일까요, 이 들다가?

00:46:02.631 --> 00:46:03.796

아닌 것 같죠?

00:46:03.896 --> 00:46:06.476

그럼 의미를 자기가 설정해놔야죠.

00:46:06.576 --> 00:46:12.135

감기가 들다는 것은 감기가 없었는데
나에게 들어오다, 이런 의미잖아요.

00:46:12.235 --> 00:46:14.001

들어오다, 이런 뜻이에요.

00:46:14.101 --> 00:46:15.708

들어오다, 이런 뜻이라고 볼게요.

00:46:15.808 --> 00:46:17.909

그런데 가방을 들다라고
하는 건 뭐예요?

00:46:18.009 --> 00:46:19.921

아래에서 위로 쳐들다,
이런 뜻이잖아요.

00:46:20.021 --> 00:46:21.114

그러니까 뜻이 달라요.

00:46:21.214 --> 00:46:24.572

그러면 이걸 기본 바탕으로
해서 애네 구분해 볼게요.

00:46:24.672 --> 00:46:27.457

단풍이 들다라고 하는 건
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?

00:46:27.557 --> 00:46:29.737

단풍이 아래에서 위로
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.

00:46:29.837 --> 00:46:32.227

그러니까 ㄱ하고 ㄷ이 똑같은 거죠.

00:46:32.327 --> 00:46:34.864

고개를 들다라고 하면 어때요?

00:46:34.964 --> 00:46:37.687

고개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니까
이거 두 개 똑같죠.

00:46:37.787 --> 00:46:39.815

그다음 보세요.

00:46:39.915 --> 00:46:40.912

이게 어렵습니다.

00:46:41.012 --> 00:46:44.876

반기를 들다라고 하면 뭐냐면
반기는 반대 깃발이거든요.

00:46:44.976 --> 00:46:46.238

이거 좀 어렵죠?

00:46:46.338 --> 00:46:47.787

반기는 반대 깃발이에요.

00:46:47.887 --> 00:46:50.682

반대 깃발을 드는 거니까
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.

00:46:50.782 --> 00:46:53.654

보험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
보험이 원래 없었는데

00:46:53.754 --> 00:46:58.671

새롭게 들어가다, 보험에 들어가다니까
ㄱ, ㄷ, ㅂ이 똑같은 거예요.

00:46:58.771 --> 00:47:00.090

아시겠죠?

00:47:00.190 --> 00:47:04.344

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
정답이 되겠네요, 됐어요?

00:47:04.444 --> 00:47:05.656

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.

00:47:05.756 --> 00:47:08.546

3번 보겠습니다.

00:47:08.646 --> 00:47:11.161

보기의 (가)와 (나)에
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

00:47:11.261 --> 00:47:13.549

골라보라고 얘기했는데요.

00:47:13.649 --> 00:47:16.606

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
경우, 각각의 의미에 따라

00:47:16.706 --> 00:47:18.221

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.

00:47:18.321 --> 00:47:20.427

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
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.

00:47:20.527 --> 00:47:24.385

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
반의어는 가다인데,

00:47:24.485 --> 00:47:29.135

공연을 서서 보다 할 때 서서는
반대가 앉다가 되는 거죠.

00:47:29.235 --> 00:47:30.823

예문을 한번 볼까요?

00:47:30.923 --> 00:47:34.704

주차장에서 차를
뺐어요, 차를 댔어요.

00:47:34.804 --> 00:47:35.882

반의어가 되는 거죠.

00:47:35.982 --> 00:47:40.352

그다음에 넣다 반의어니까, 이걸 어떻게
문제를 풀면 되냐면, 애들아.

00:47:40.452 --> 00:47:48.002

우선 빼다라는 말이 있으니까
빼다라는 말이 넣다와 반대되는 말로

00:47:48.102 --> 00:47:50.710

쓰인 것을 찾으려면
되겠죠, 예문에서.

00:47:50.810 --> 00:47:54.942

그다음에 저금을 빼서
빚을 갚았다라고 했으니까

00:47:55.042 --> 00:47:59.094

이 빼서는 반대말 (나)가 뭐가
들어갈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.

00:47:59.194 --> 00:48:01.971

그러면 확인을 해보면,
정답 확인 하겠습니다.

00:48:02.071 --> 00:48:04.969

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.

00:48:05.069 --> 00:48:07.635

이번 경기에서 그를 뺐다.

00:48:07.735 --> 00:48:09.240

그 대신 뭘 하면 되냐면, 애들아.

00:48:09.340 --> 00:48:10.585

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.

00:48:10.685 --> 00:48:13.742

여기 뺐다, 뺐다,
뺐다, 뺐다, 뺐다.

00:48:13.842 --> 00:48:14.931

잘 봐요.

00:48:15.031 --> 00:48:19.042

반의 관계는 그 반의 관계의 단어를
집어 넣어도 말이 되는 거죠.

00:48:19.142 --> 00:48:20.949

그냥 반대의 뜻이 될 뿐이니까.

00:48:21.049 --> 00:48:22.752

반의 관계가 뭐라고 했냐면 넣다죠.

00:48:22.852 --> 00:48:24.326

넣다를 집어넣어 보세요.

00:48:24.426 --> 00:48:27.662

넣다를 집어넣어 보면 풍선에
바람을 넣다, 되는 거죠.

00:48:27.762 --> 00:48:31.518

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넣었다,
안 되는 거죠, 2번은.

00:48:31.618 --> 00:48:34.570

주머니에 손을 넣었다, 되는 거죠.

00:48:34.670 --> 00:48:37.096

새집 냄새를 넣었다,
새집 냄새를 넣지 않죠.

00:48:37.196 --> 00:48:38.665

정답 틀렸고.

00:48:38.765 --> 00:48:40.901

이번 경기에서는 그를
넣었다, 되는 겁니다.

00:48:41.001 --> 00:48:43.020

그러면 3개가 답이
될 수 있겠네요?

00:48:43.120 --> 00:48:45.303

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
거냐면 저금을 빼서

00:48:45.403 --> 00:48:47.636

빚을 갚았다라고 할 때 반대말.

00:48:47.736 --> 00:48:51.031

저금을 뺐다는 거니까 저금을
했다는 뜻이 되면 되는 거죠.

00:48:51.131 --> 00:48:52.535

저금을 뺐었다, 안 되죠.

00:48:52.635 --> 00:48:57.856

저금을 찾았다, 찾았다는 것도 역시
마찬가지로 저금을 뺐다는 것과

00:48:57.956 --> 00:48:59.521

똑같으니까 안 되죠.

00:48:59.621 --> 00:49:01.261

저금을 들었다, 그렇죠.

00:49:01.361 --> 00:49:02.540

정답은 들다.

00:49:02.640 --> 00:49:06.007

어떤 저금을 했다, 이런 뜻이니까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.

00:49:06.107 --> 00:49:11.195

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실 건
뭐냐면 반대말은 집어넣으면

00:49:11.295 --> 00:49:12.643

말이 돼요, 여러분.

00:49:12.743 --> 00:49:14.229

반대의 뜻만 될 뿐이에요.

00:49:14.329 --> 00:49:15.660

말이 되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49:15.760 --> 00:49:17.276

이런 거예요, 여러분.

00:49:17.376 --> 00:49:22.845

우리 왜 다르다와 틀리다를
잘못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.

00:49:22.945 --> 00:49:24.044

다르다, 틀리다.

00:49:24.144 --> 00:49:27.282

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
여자애 어제랑 얼굴이 틀리네.

00:49:27.382 --> 00:49:28.768

틀린 게 아니에요.

00:49:28.868 --> 00:49:30.853

어제랑 얼굴이 다르네라고
써야 되잖아.

00:49:30.953 --> 00:49:33.334

그런데 틀리다라는 말을
워낙 사람들이 많이 써서,

00:49:33.434 --> 00:49:35.020

잘못된 말을 많이 쓰잖아요.

00:49:35.120 --> 00:49:36.508

직업병인가 봐, 애들아.

00:49:36.608 --> 00:49:39.445

그런 거 막 들으면 안 되는데,
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.

00:49:39.545 --> 00:49:44.149

틀리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애들아,
문장에서 쓰임이 완전히 다르죠.

00:49:44.249 --> 00:49:45.602
다르다의 반대말은 뭐예요?

00:49:45.702 --> 00:49:48.417
같다이고, 틀리다의
반대말은 맞다잖아요.

00:49:48.517 --> 00:49:51.107
그러니까 저 여학생의
얼굴은 어제와 틀리다.

00:49:51.207 --> 00:49:52.523
반대말 집어넣어 봐요.

00:49:52.623 --> 00:49:54.347
어제와 같다, 어제와 맞다.

00:49:54.447 --> 00:49:55.986
어제와 같다가 맞잖아요.

00:49:56.086 --> 00:49:59.343
그러니까 반대말을 집어넣어
보면 오히려 말이 됩니다.

00:49:59.443 --> 00:50:01.094
반대의 뜻만 나타나는 것뿐이니까.

00:50:01.194 --> 00:50:03.291
그거 꼭 확인하세요.

00:50:03.391 --> 00:50:05.820
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.

00:50:05.920 --> 00:50:09.523
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50:09.623 --> 00:50:11.439
복잡해 보이네요.

00:50:11.539 --> 00:50:13.237
(가)에 들어갈 내용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.

00:50:13.337 --> 00:50:16.533
우선 실제 담화를 분석해서
화자와 청자가

00:50:16.633 --> 00:50:20.470
누구인지에 따라서 동일 인물이
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

00:50:20.570 --> 00:50:22.687
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.

00:50:22.787 --> 00:50:27.162
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에 찾아온
상황입니다, 복잡해 보이죠.

00:50:27.262 --> 00:50:29.106

은미의 고모가 은미
집을 찾아왔어요.

00:50:29.206 --> 00:50:31.577

할머니가 어서 와라,
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?

00:50:31.677 --> 00:50:33.404

딸한테 얘기하는 거야, 딸.

00:50:33.504 --> 00:50:36.176

김 서방도 잘 지내지,
이거는 누구예요?

00:50:36.276 --> 00:50:37.412

김 서방도 잘 지내지?

00:50:37.512 --> 00:50:41.851

㉠은 김 서방이니까 누구냐면
딸의, 고모의 남편이죠.

00:50:41.951 --> 00:50:43.360

고모의 남편입니다.

00:50:43.460 --> 00:50:44.639

고모, 네 엄마.

00:50:44.739 --> 00:50:45.722

엄마는 할머니죠.

00:50:45.822 --> 00:50:48.474

그이도 잘 지내요, 그이가 바로
김 서방이겠네요, 그렇죠?

00:50:48.574 --> 00:50:50.542

그이가 바로 잘 지내요.

00:50:50.642 --> 00:50:53.362

언니, 그동안 잘
계셨어요라고 얘기했는데.

00:50:53.462 --> 00:50:55.586

고모가 언니라고 얘기한
건 바로 누구야?

00:50:55.686 --> 00:50:58.477

은미의 엄마예요.

00:50:58.577 --> 00:50:59.980

은미의 엄마를 언니라고
부르는 거예요.

00:51:00.080 --> 00:51:04.046

친언니가 아니라 자기 남편의
부인이니까 언니라고 표현하죠.

00:51:04.146 --> 00:51:05.485

네, 아가씨.

00:51:05.585 --> 00:51:06.649

아가씨는 바로 누구예요?

00:51:06.749 --> 00:51:07.625

고모쥬, 고모.

00:51:07.725 --> 00:51:08.778

은미의 고모쥬.

00:51:08.878 --> 00:51:10.364

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.

00:51:10.464 --> 00:51:12.183

고모 고마워요.

00:51:12.283 --> 00:51:13.199

아니쥬.

00:51:13.299 --> 00:51:15.061

고모가 고마워요,
이렇게 얘기한 거쥬.

00:51:15.161 --> 00:51:16.050

미안합니다.

00:51:16.150 --> 00:51:17.300

고모가 고마워요.

00:51:17.400 --> 00:51:21.190

고마워요, 언니 여기까지 되쥬?

00:51:21.290 --> 00:51:24.278

은미야, 공부하느라 힘들지,
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51:24.378 --> 00:51:25.686

고모가 얘기한 거고.

00:51:25.786 --> 00:51:27.071

아니예요, 고모.

00:51:27.171 --> 00:51:29.690

이 고모는 아까 그
아가씨하고 똑같은 거쥬.

00:51:29.790 --> 00:51:31.378

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?

00:51:31.478 --> 00:51:32.423

고모부는 누구야?

00:51:32.523 --> 00:51:34.041

그이, 김 서방하고
똑같은 사람이쥬.

00:51:34.141 --> 00:51:35.400

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?

00:51:35.500 --> 00:51:39.019

고모, 응, 고모부는 다른
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.

00:51:39.119 --> 00:51:42.147

고모부하고 김 서방하고 그이는
가리키는 대상이 똑같아요.

00:51:42.247 --> 00:51:46.061

이런 것들이 이제 담화에서
문제가 나오는 건데요.

00:51:46.161 --> 00:51:47.328

1번 보자.

00:51:47.428 --> 00:51:50.748

㉠과 ㉡을 보면 김
서방하고 그이죠?

00:51:50.848 --> 00:51:56.575

화자와 청자가 맞바뀌면서 할머니가
화자고, 고모가 청자니까

00:51:56.675 --> 00:51:57.991

김 서방이죠.

00:51:58.091 --> 00:52:02.356

고모가 화자이고, 할머니가 청자니까
바뀌면서 그이라고 하는 말이

00:52:02.456 --> 00:52:06.130

서로 동일한 인물에서, 동일한
인물이 다르게 표현됐다는 걸

00:52:06.230 --> 00:52:07.079

확인할 수 있죠.

00:52:07.179 --> 00:52:08.141

1번 정답이네요.

00:52:08.241 --> 00:52:09.383

2번 볼까요?

00:52:09.483 --> 00:52:11.401

㉠과 ㉢을 보면, ㉢이죠?

00:52:11.501 --> 00:52:16.768

청자는 같지만, 청자는 여기에서 할머니,
김 서방 할 때 청자는 고모죠.

00:52:16.868 --> 00:52:19.285

엄마가 네, 아가씨
할 때 아가씨는 고모죠.

00:52:19.385 --> 00:52:20.568

청자가 고모예요.

00:52:20.668 --> 00:52:24.875

청자는 같지만, 화자가 달라서,
화자가 할머니하고 엄마죠, 다르죠?

00:52:24.975 --> 00:52:27.955

달라서 동일한 인물이, 틀렸죠.

00:52:28.055 --> 00:52:31.035

김 서방하고 아가씨가 왜
동일한 인물이겠어요?

00:52:31.135 --> 00:52:34.149

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
표현되었다, 2번이 정답이네요.

00:52:34.249 --> 00:52:38.314

3번, ㉠과 ㉡을 보니까
김 서방, 고모부예요.

00:52:38.414 --> 00:52:40.522

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.

00:52:40.622 --> 00:52:44.225

화자는 할머니하고 그다음에
고모가 얘기한 거니까

00:52:44.325 --> 00:52:45.589

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.

00:52:45.689 --> 00:52:46.853

동일한 인물은 맞죠.

00:52:46.953 --> 00:52:48.030

다르게 표현되었군.

00:52:48.130 --> 00:52:48.879

맞습니다, 3번은.

00:52:48.979 --> 00:52:49.921

4번 볼까요?

00:52:50.021 --> 00:52:52.303

㉢, ㉣을 보니까,
그이하고 고모부죠.

00:52:52.403 --> 00:52:54.524

화자는 같지만, 누가 얘기한 거야?

00:52:54.624 --> 00:52:55.871

고모가 얘기했어요.

00:52:55.971 --> 00:52:58.321

이것도 역시 고모가
얘기했으니까 화자는 똑같죠.

00:52:58.421 --> 00:52:59.676

청자가 다르죠.

00:52:59.776 --> 00:53:04.283

여기는 할머니가 청자고,
여기는 은미가 청자니까요.

00:53:04.383 --> 00:53:06.296

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었군.

00:53:06.396 --> 00:53:07.883

동일한 인물 확인하면 되겠죠.

00:53:07.983 --> 00:53:11.128

㉔, ㉕을 보면 ㉔
아가씨, 고모입니다.

00:53:11.228 --> 00:53:12.771

화자가 달라요.

00:53:12.871 --> 00:53:15.398

엄마가 얘기하고, 은미가 얘기한
거니까 화자가 다르죠.

00:53:15.498 --> 00:53:19.156

동일한 청자가 엄마가 네 아가씨,
아가씨한테 얘기한 거야.

00:53:19.256 --> 00:53:21.521

고모한테 얘기한 거고,
은미 아니에요, 고모.

00:53:21.621 --> 00:53:24.342

고모한테 얘기한 거니까 청자가
다르게 표현된 거죠.

00:53:24.442 --> 00:53:29.057

동일한 청자인데 다르게 표현된 거니까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53:29.157 --> 00:53:33.598

여러분, 여기까지 의미, 담화에
대한 문제 살펴봤는데요.

00:53:33.698 --> 00:53:36.622

우리 평상시 언어 습관들이
많이 들어가 있고요.

00:53:36.722 --> 00:53:41.240

평상시의 언어 호칭어라든가 이런
것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

00:53:41.340 --> 00:53:42.692

문제일 겁니다, 아마.

00:53:42.792 --> 00:53:46.074

특히 중요한 건 중심 의미,
주변 의미 찾는 거 중요하고요.

00:53:46.174 --> 00:53:47.414

반의어 찾는 것도 중요하고.

00:53:47.514 --> 00:53:49.288

그다음에 중의적 표현이라고
하는 거 있잖아요.

00:53:49.388 --> 00:53:50.929

그것도 꼭 눈여겨보셨으면
좋겠습니다.

00:53:51.029 --> 00:53:52.237

여러분, 여기까지 하고요.

00:53:52.337 --> 00:53:54.213

다음 시간에 국어의 변천입니다.

00:53:54.313 --> 00:53:56.712
국어의 변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.

00:53:56.812 --> 00:53:58.683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